



발간등록번호 71-7530463-000001-08
ISSN 1976-8907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2015 SPRING

VOL.
32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 · 광주 · 포천 · 김포 · 여주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사랑을 받는 일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렸으므로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 깊이 누군가를 배려해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인생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보다는
누가 곁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기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보다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오마르 워싱턴

CONTENTS

04 내 인생 한 권의 책

06 테마 기획

08 책 vs 미디어

10 학교도서관과 함께해요

18 책읽는 가족

20 책읽는 스승 릴레이

24 이슈도서 깊이보기

29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54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

56 이용자가 선택한 즐겨찾는 책

58 도서관 이모저모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일경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이야기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도서관에서 찾은 행복

김포도서관 유상연 가족

일산동고등학교 오지영 선생님

「그림이 된 임진왜란」

「마시멜로 테스트」

추천도서 종합목록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 일반

학교에서 함께 읽고 싶은 책 | 청소년

책이랑 나랑 | 어린이

신동엽 문학관을 찾아서

일반 및 어린이 베스트 5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및 5개 분관 소식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2015 Spring Vol.32

발행인 권우섭 | 발행일 2015년 4월 | 발행처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편집위원 박재연, 엄영남, 김민지, 권미향, 노경아, 임유라, 이아란, 김원선

TEL 031-240-4032 | FAX 031-242-3062

홈페이지 www.happylib.or.kr | 디자인제작 맥피아

표지 설명

봄은 어느새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와 있습니다.



‘아티스트 웨이’를 읽고 (Artist's Way)

「아티스트 웨이」 - 나를 위한 12주간의 창조성 워크숍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 일 경

자기개발서의 홍수에 밀려 비슷한 책을 멀리 하던 몇해 전, 블로그 절친들의 ‘모닝페이지 쓰기’ 붐이 있었다. 나 역시 창조성 회복 운운 하며 모닝페이지를 시작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쓰다말다를 반복하곤 했었다. 짬이 나면 책을 읽기보다는 펜과 종이를 들고 앉아 마음속의 얘기들을 끄집어내곤 했지만, 그건 여유가 있을 때의 얘기이고 규칙적이질 않았다. 모닝페이지에 대한 갈급함이 고개를 들 즈음, 내 안의 아티스트를 만나기 위해 맨 먼저 ‘아티스트 웨이(THE ARTIST'S WAY)’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책의 저자인 ‘줄리아 카메론’은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창조성 회복 프로그램의 강의

노트로부터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20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프로젝트의 교재와 소모임 주제로 쓰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꿈을 묻어둔 채 무미건조한 일상을 흘러보내던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의 창조성을 회복하고 자기만의 예술활동을 시작했다.

이 책은 창조성을 회복하고 자기 내면의 아티스트를 만나기 위한 교재이다. 12주 과정으로 나누어 각 섹션별로 특정 주제를 다루었으며, 이 과정의 실천은 자기 내면에 간혀 있는 창조적인 힘이 마음껏 움직이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처음엔 책의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어 보았다. 각 장은 본문과 함께 연습, 과제, 점검으로 되어 있어 계획을 세우고 12주에 돌입해야 하는데, 하루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12주 과정을 밟아가는 동안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줄리아 카메론은 “창조성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기에 형태는 다르나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창조성 회복을 위해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두 가지 중요한 도구를 실천해야 한다고 한다.

모닝 페이지란 간단히 말해 매일 아침 의식의 흐름을 세 쪽 정도 적어가는 것으로 일종의 능동적인 명상이라 할 수 있다. 두서없이 써 내려가는 모닝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 자신에게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소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 후회하는 것, 계획하는

것을 선포하게 된다. 물론 세상에 내놓을 작품도, 일기도, 작문도 아니기에 자신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솔직한 자아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아티스트 데이트란 매주 두 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자신의 창조적인 의식과 내면의 아티스트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다. 자신 안의 창조성을 밖으로 내놓아 마음껏 응석 부리게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 빌려보기, 해변에 혼자 가기, 옛날 영화 보러 가기, 수족관이나 미술관에 가기 등 아티스트 데이트는 창조성을 탐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기만의 즐겁고 신나는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이때 나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작가는 두 가지 도구인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내면의 진정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모닝 페이지는 내면의 검열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훈련이다. 아티스트 데이트는 내면에서 솟구치는 영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도와준다. 물론 이 두가지는 실질적인 창조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창조성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술은 새로운 무언가를 억지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적는 것이다.”

- 본문(208-209쪽) 중에서

이 책은 내게 다시금 ‘모닝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 굳이 아티스트를 꿈꾸지 않더라도 자기 내면에 있는 창조성을 만나고 이를 발현할 수 있다면 이 보다 좋은 게 또 있을까. 결국 아티스트 웨이의 핵심 주제는 내 안의 창조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모닝페이지와 아

티스트 데이트를 통해 창조성을 회복하고, 심지어 산을 오르는 것처럼 걷고, 엎드리고, 다시 몸을 세워 일어서고, 또 걷고, 엎드리고... 그러나 무엇보다 맨 먼저 할 일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일단 시작하겠다고 결심하고 걸음마를 떼는 것이다. 그 걸음마는 ‘아티스트 웨이’를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길!



도서관과 친구 맺는 첫걸음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어린이독서회”



경기도 내 도서관 1호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설립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독서 놀이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유아와 어린이는 도서관에 소장된 다양한 주제분야의 그림책과 동화를 접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번 봄호에서는 도서관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알도록 해주는 우리도서관의 어린이 독서회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글 박혜인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운영 개요

해맑은 독서회	늘푸른 독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시작: 1997년 3월~ 대상 및 회원수: 초등학교 3, 4학년 20명 내외 모임기간: 3월~12월 (8월은 휴강) 연간 모임횟수: 18회 모임장소: 경기도립중앙도서관 3층 강약실 특별회원 자격부여: 활동기간동안 관외대출권수 10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시작: 2005년 3월~ 대상 및 회원수: 초등학교 5, 6학년 20명 내외 모임기간: 3월~12월 (8월은 휴강) 연간 모임횟수: 18회 모임장소: 경기도립중앙도서관 3층 강약실 특별회원 자격부여: 활동기간동안 관외대출 권수 10권까지

어린이독서회는 회원들이 연간 활동도서로 선정된 책을 읽고, 자신의 감상을 서로 공유하며 읽은 책에 대한 이해와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독서교육의 일환이다. 우리도서관 어린이독서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활동할 수 있는데, 매년 2월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1년여간 모임을 통해 꾸준히 독서활동을 지속한다.

연간 17책 이상의 활동도서를 중심으로 약 1시간 동안 모임을 지도하는 사서와 독서논술 전문강사의 다양한 독후활동과 독서토론으로 진행된다. 독서회원은 선정된 연간 필독도서를 사전에 읽은 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어린이독서회에 참여하는 회원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해 독서회원들에게는 도서관 관외대출자료수를 10책까지 대출할 수 있는 특별회원 자격이 활동기간 동안 부여된다.

또한 운영기간중 관련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북아트, 미술체험, 마인드 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여 도서관을 친근하게 느끼고 독서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해맑은 독서회는 첫째,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늘푸른 독서회는 첫째,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도서관 본관 3층 강의실에서 정기모임을 갖는다.

초등독서회 상반기 선정도서

| 해맑은독서회 |

회차	모임일자	선정도서 서명	저 자	출판사
1	3.7(토)	평화는 어디에서 오나요	구드룬 파우제방	웅진 주니어
2	3.21(토)	나라의 자랑 국보이야기	우리누리	주니어 중앙
3	4.4(토)	풀꽃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상권	현암사
4	4.18(토)	어린이 첫 작업 백과	이자벨 푸제르	예림아이
5	5.2(토)	모네의 정원에서	크리스티나 비외르크	미래사
6	5.16(토)	꼬불꼬불 나라의 인권이야기	서해경	풀빛미디어
7	5.30(토)	영화관람: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키메론 크로우 감독	
8	6.20(토)	우리 마을에 전쟁이 났어요	파티마 사라페딘	맑은 기쁨
9	7.4(토)	난 황금알을 낳을거야	한나 요한젠	문학동네

| 늘푸른독서회 |

회차	모임일자	서 명	저 자	출판사
1	3.7(토)	연간일정 안내, 도서관이용법		
2	3.21(토)	유네스코가 선정한 한국의 세계유산	이경덕	아이세움
3	4.4(토)	세계를 바꾸는 착한 기술 이야기	유영선	북멘토
4	4.18(토)	내 일 탐구소	서울문화사 편집부	서울문화사
5	5.2(토)	오월의 달리기	김해원	푸른숲
6	5.16(토)	나는 행복하니	세이브 더 칠드런	검동소
7	5.30(토)	영화관람: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키메론 크로우 감독	
8	6.20(토)	세상에서 가장 큰 스케치북	박수현	고인돌
9	7.4(토)	역사 속 살아숨쉬는 국채이야기	최모임	박물관

▶ 운영모습





인생 100세 시대, 100세 노인의 모험이야기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책 이야기

글_김진경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람이 한 세기, 100년을 살아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한 100세를 산 사람에게 앞으로의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 최근 한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100세를 넘은 노인 인구가 최근 4년 사이 35%나 증가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100세, 그냥 장수한 사람이라고 치면 별로 새삼스러운 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 1915년, 광복도 되기 전 조선에 태어난 사람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이지 이상한 기분이 든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와 마주하게 되는 기분이라랄까.

여기 100년이라는 시간의 역사를 몸에 새기며 살아온 한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가 있다.

2009년 스웨덴에서 출간된 요나스 요나손의 소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이 소설은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에서 총 500만부가 팔렸으며, 스웨덴 베스트셀러상, 덴마크 오디오북상, 독일 M-피오니어상, 프랑스 에스카파드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휩쓸고 2013년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되어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상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어디가나 인기 없는 100세나 된 노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두 인기를 얻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야기의 힘이 궁금해진다.

100년의 역사를 타고 넘는 유쾌한 모험담

이야기의 주인공 알란 칼손. 그는 돈, 명예, 여자는 물론 정치에도 관심이 없다. 그저 폭탄과 약간의 술만 있으면 매사 긍정적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 초긍정 사내는 1905년 5월 2일에 태어나 러시아혁명,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과 프랑스 6.8혁명, 미소냉전 시대까지 역사적으로 굵직한 사건 속 핵심 인물들과 엮이며 좌충우돌, 신나게 인생을 헤쳐 나간다.

중요한 역사의 맥을 짚어가며 유쾌한 에피소드로 엮어가는 이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역사적 사건과 당대 인물들을 만나게 해준다. 시종일관 황당한 사건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 속속들이 채워진 알란 칼손의 유쾌하고 단순한 행동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꽤 묵직한 울림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쓸데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 본댔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어요?”(본문 p.272)

10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모험을 즐기는 이 노인,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일단 행동하는 이 초긍정 할아버지가 양로원을 탈출해 벌어지는 웃지 못할, 그러나 웃지 않을 수 없는 사건사고들. 할아버지가 선사하는 웃음폭탄을 맞고 있으면 저절로 매사 전전긍긍 걱정으로 아침을 맞는 내 나이, 겁 많은 청춘이 부끄러워진다.



영화 이야기



굴곡을 겪는 알란과 2005년 100세에 양로원을 탈출해 생의 마지막 모험을 벌이는 알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알란 칼손의 모험일대기를 유쾌하게 보여준다.

소설에서 이야기가 현재와 과거 두가지 방향으로 교차 진행되는 것을 그대로 살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100년 동안의 에피소드와 현재의 양로원을 탈출해 우연찮게 거금의 트렁크를 갖고 튀게(?)되는 한달반 가량의 탈주기를 다소 느린 할아버지의 속도로 잔잔하게 이끌어간다.

영화에서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 '알란 칼손'역의 배우, 로버트 구스타프슨이다. 그는 젊은 20대에서 100세 노인이 된 알란의 모습까지 능청스럽게 소화해낸다. 스웨덴에서는 '슬랩스틱 코미디의 달인'으로 불린다는 그의 연기가 영화전반에 배어있어 인생 속 알란이 겪게 되는 수많은 비극을 유쾌한 희극으로 만들어버린다.

2013년, 플렉스 할그렌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는 잔잔한 북유럽의 풍경을 배경으로 1905년 태어나 역사적

알란 칼손은 가난하게 살다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끌려가 실험 용으로 거세당하고,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용소 생활도 하게 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는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특유의 긍정적 자세로 "세상만사는 그 자체일 뿐이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자체일 뿐"이라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원망도, 슬픔도 없이 모든 일을 순리대로 받아들인다. 배사 걱정도 없이 어디에서든 약간의 술로 만족하며 인생을 즐기는 그의 낙천적인 성격을 무뎌뎌한 표정으로 살려낸 배우의 연기가 자연스러워 다소 황당한 극의 흐름도 편안하게 느껴진다.

억지웃음을 유발하기 보다는 피식, 피식 웃음을 흘리게 되는 영화. 헐리우드의 대단한 블록버스터 같은 압도적 힘은 없어도 100세의 할아버지의 어디로 뺄지 모르는 행동이 소소한 재미와 귀여운 긴장감으로 마지막까지 담백하게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참을 웃으며 보고나면 가슴속 한 곳이 찡-해지는, 잔잔하게 웃긴(?) 감동을 준다.



책 VS 영화

"소중한 순간이 오면 따지지 말고 누릴 것, 우리에게 내일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영화는 소설의 재미를 착실하게 살려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능청스럽게 위기를 넘기는 주인공의 캐릭터도 살아있고 유쾌한 이야기 속 장면들도 영화로 확인하니 와하하, 속 시원한 웃음이 터진다. 그런데 이대로는 뭔가 허전하다. 영화만 본다면 그냥 황당하게 웃긴 영화 한 편을 본 기분일 것이다.

508페이지에 달하는 소설 속에서 재미있는 부분만을 쏙쏙 뽑아내 영화에 담아서 그런지 과감한 생략과 변형이 원작 소설이 갖는 매력을 많이 깎아버린 듯하다. 유럽의 현대사가 살아 넘치는 한 노인의 삶이 뭉툭뭉툭 빠져있어 아쉬울 뿐이다. 이미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책으로도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큰 줄거리를 알고 있어서 오히려 소설 속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며 제대로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책 속 글만으로는 구체화되지 못한 장면들도 생생히 떠올릴 수 있고, 이야기의 흐름만을 쫓아가지 않고 행간에 담겨진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갖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영화와 책을 함께 보고, 읽는다면 100세 알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참된 인생 교훈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

학교도서관과
함께해요

덕풍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찾은 행복”

글_이진희
덕풍초등학교 사서

CONTENTS

- ▶ 신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독서의 즐거움 찾고 상도 타고
- ▶ 즐겁게 책 읽고 「독서 북아트」 해요
- ▶ 「달님은 알지요」의 김향이 작가와 5학년의 특별한 만남
- ▶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 재활용품으로 만들고 함께 놀아요
- ▶ 야회 여름엔 도서관에서 캠프하며 놀아요
- ▶ 가을, 독서의 달 행사 「책으로 열어가는 힐링여행」
- ▶ 진로 찾아 떠나는 독서동아리 활동
- ▶ 토론 전문강사의 특강 듣고 독서토론 해봐요
- ▶ 책사랑 어머니회 「책 읽어주는 엄마」, 1~2학년 교실에 가다
- ▶ 책사랑 어머니회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6학년 천연비누 만들기」
- ▶ 예산 확보 및 교사·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Photo List

덕풍
초등학교



재미있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신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독서의 즐거움 찾고 상도 타고

본교는 그간 꾸준히 양질의 장서 확충 및 재미있는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독서능력이 향상되었다. 그 결과 교내의 독서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횟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대교출판 제22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책봄 캠페인'에 930편의 시를 제출하여 '어린이 창작 동시 부문' 개인상 및 단체상 <대상> 수상, 5백만원 상당의 도서(단행본 529권)도 상품으로 받았다. 또, 하남시 위례백일장에서 최우수상 등 개인 및 학교단체상 수상, 이 외에도 한우리독서운동본부 독서능력평가에 응시하여 개인상 및 단체상을 획득하기도 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생동아리 공모에 선정되어 활동지원금 및 북 토크 도서도 지원받게 되었다. 다음은 지난 1년간 활동한 독서프로그램들이다.



독서 북아트 도서실에서

즐겁게 책 읽고 「독서 북아트」 해요!

5학년을 시작으로 26학급의 독서 북아트가 도서실에서 한 학급당 2 시간씩 이루어졌다. 단순한 구조 접기가 아닌 마인드맵으로 책 내용을 파악하고 토론하며 나눈 얘기들을 고스란히 '나만의 책'에 담은 이 수업은 아이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는 수업으로 자리 잡았다



「달님은 알지요」의 김향이 작가와 5학년의 특별한 만남



5학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작가 초빙 특강을 준비하기 위하여 <맹꽁이원정대 몽골로 가다/ 비룡소> 도서를 구입하여 각 학급별로 돌려 읽고 나서 도서실에서 독서 북아트를 했다. 실제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 이야기는 낯선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마침 본교 5학년에도 부모님을 따라 이주해 온 몽골친구가 있어서 더욱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작가는 특강에 와서 본 사전수업 내용이 너무 훌륭하다며 출판사에 본교 사례를 보내 작가초빙을 준비하는 타 학교에 귀감으로 삼고자 사진과 함께 우수사례를 부탁해 오기도 했다. '행복은 스스로 찾는 것'이란 주제로 작가와 만나 행복에 관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나니 5학년 학생들의 표정이 더없이 밝아보였다.

Photo List

덕풍
초등학교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 재활용품으로 만들고 함께 놀아요!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하며 학생들이 자연스레 책과 도서관에 관심을 갖도록 매년 다양한 교내 행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올해 특별히 종이컵 홀더, 페CD 등 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가 특색 있어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무심코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프로그램 재료로 활용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번 행사를 더 돋보이게 했다. 이후 집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도서관으로 가져와 행사 재료로 사용하면 어떻겠냐며 가져오시는 학부모님이 늘었다. 행사비용도 줄일 수 있고 폐품사용으로 학생들과 자원 재생의 의미를 느껴 본 뜻 깊은 행사였다.

다양한 주제
내용의 독서캠프

야호! 여름엔 도서관에서 캠프하며 놀아요

학교도서관에서 가장 비중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여름·겨울독서교실 운영이 있다. 방학을 맞아 그간 시간에 쫓겨 폭 넓고 다양한 독서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주제와 내용의 독서캠프를 꾸리게 되는데 올해는 특별히 2개 학년 군으로 묶어 3일씩 진행했다.

여름방학엔 <독서일기장 활용법>과 <원고지 쓰는 법 알기>, <국기카드와 함께 월드컵 여행>을, 겨울방학에는 '책 속으로 악기여행을 떠나요'란 주제로 <빈병으로 악기 만들기>, <각종 악기 연주하며 악기별 소리 알기>, <북아트 -



나만의 악기책 만들기)를 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 또 <독서 달력 만들기>로 방학동안 읽을 책을 미리 계획하여 보는 시간도 가졌다.



가을, 독서의 달 행사 「책으로 열어나가는 힐링여행」

9월 2주간 실시된 '독서의 달' 행사는 전교생이 도서관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종이접기로 책 만들며 놀자>, <숨은그림찾기하며 속담공부>, <독서영화감상>, <독서명언 비누 만들기>, <좌우명 쓰기>와 각 학년 상황에 따라 추진하는 학년행사 <독후감상화 그리기>, <독서엽서 쓰기>, <독서만화 그리기>, 신청자만 참여하는 <가족독서신문 콘테스트>와 <릴레이 책 여행보내기>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종이접기와 속담공부는 새롭게 진행된 행사로 저학년들이 즐겁게 참여하였고, <가족독서신문 콘테스트>에 함께 책 읽고 느낀 점, 추천하는 책, 책 읽는 모습 등을 내용으로 가족이 함께 정성스럽게 꾸민 작품을 제출하였다.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더욱 많은 작품이 들어왔고, 그 정성과 수준도 훌륭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즐겨 읽고, 그리고 감상한 내용들이 곳곳에 나타난 훌륭한 작품을 보니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라고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가족이 함께 독서하는 모습은 앞으로 학생이 평생 독자로 자라나는 데 크나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진로이해도 큰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



진로 찾아 떠나는 독서동아리 활동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을 기획하고 공모에 제출했더니 탈락 선정이 되었다. 5-6학년 학생 20명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7주간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다. 자신의 강점인증서 쓰기, 동화책 직업 찾고 읽을 책 목록 작성하기, 진로관련 영화 감상하고 나의 멘토 찾기, 되고 싶은 직업군 찾고 냅킨아트 하기, 내 꿈 설계하고 미래 명함 만들기 등 단순한 책 읽기를 넘어 책을 읽고 진로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곁들였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4 청소년 대상 북 토크 지원사업의 1만원 내외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북토크' 20장도 지원받았다.

외부 활동으로 잡월드 체험활동을 계획했으나 재난 안전문제로 외부 행사 자체 분위기에 따라 교내 행사로 대체된 점은 대단히 아쉬웠던 점이다. 또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인 만큼 참여 학생의 의지와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했다.

Photo
List

덕풍
초등학교



토론 전문강사의 특강 듣고

독서토론 해봐요

최근 들어 말하기 중심의 토론교육 활성화 분위기로 책에 기반한 '북 스피치'를 통해 자기 표현력 및 공감과 소통능력을 기르고자 본교에서도 독서토론수업과 토론대회를 기획하여 운영하게 됐다.

10월 29일부터 총 5회차 실시한



토론수업은 전문강사 토론 특강을 시작으로 2회부터 3회차까지 실제 토론을 하면서 토론방법을 익히고, 4회차에 본선진출자를 가리는 예선전을 치른 후 마지막 5회차 본선에서 등위를 가리는 토론대회 순으로 진행했다. '바른 인성, 행복한 마음'이란 주제로 학생들이 가정 및 도서관에서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는 분량이 많지 않은 그림동화책을 선정하여 진행했다. 또 당일 본선 내용을 방송용 카메라로 촬영하여 월요조회시간에 상영하였다.

엄마 목소리로
아이들의
인성 및 감성을 일깨워
주기

책사랑 어머니회 「책 읽어주는 엄마, 1~2학년 교실에 가다

따뜻한 엄마 목소리로 아이들의 인성 및 감성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20분간 1, 2학년 9개 반에 들어가서 그림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 특히 쉬는 시간에 아이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데 책 읽어주는 시간만큼은 활발하던 아이도 잠시 집중하며 책 듣기에 몰입하고 있다. 도서관에 자주 오지 않던 아이들도 이 시간 이후 읽어준 책을 찾아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담임선생님도 반응이 좋은 책은 교실에 일주일간 두고 아이들이 마음껏 그 책을 감상하도록 돕는다.



책사랑 어머니
함께 천연비누
만들기

책사랑 어머니회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6학년 천연비누 만들기」

책사랑 어머니회의 지원으로 6학년 체험활동 <책사랑 어머니와 함께 천연비누 만들기>를 하게 되었다. 비누의 유래와 천연비누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누 만들기 활동에 참여한 6학년은 그간 소원했던 도서관과 책에 다시 관심을 가





Photo List

덕풍
초등학교



지게 되었고,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호감과 신뢰도도 더불어 높아졌다. 포장된 비누를 받고 활짝 핀 웃음을 보이는 학생들을 보니 보람을 느낀 행사로 기억된다.



예산 확보 및 교사·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본교 운영과정 중 나타난 다음과 같은 안정적인 운영시간 확보와 예산문제 해결,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보다 나은 독서교육이 될 것이다. 행사와 이벤트 위주의 독서프로그램들이 난무한 요즘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독서교육이 될 수 있을지 생각이 많아진다.





유상연 가족

경기도립김포도서관

경기도립김포도서관과 함께하는 독서생활에
행복을 느낀 우리 가족



1 책을 가까이 하게 된 계기

우리 가족이 계획을 세우고 책을 가까이 하게 된 계기는 5년 전 김포시로 이사 오면서부터였다. 김포는 도·농 도시로 문화시설은 부족하지만 경기도립김포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 시립도서관 등이 있어 독서하기에 좋았다.

이사 오기 전에는 주로 아이의 책을 전집으로 구매하여 읽히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면이 적지 않았지만 집에서 가까운 경기도립김포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서부터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것이 주말의 행사가 되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폭넓게 읽을 수 있고 신간을 희망도서로 신청해 볼 수도 있어 자주 이용하게 되었다.

우리는 독서카드를 만들어 각자 독서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책읽기에 몰두했다. 어른은 한 달에 4권 이상의 책을, 아이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천권의 책을 읽기로 목표를 세운 후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은 꾸준히 지켜지고 있으며 우리가족의 습관이 되어 버렸다.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책의 그림이 줄어들고 글밥이 많아져 조금은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책 읽는 습관을 잘 유지해오고 있다.

2 경기도립김포도서관에서

이렇게 책 읽는 습관 덕분에 경기도립김포도서관에서 2014년 '책읽는 가족'으로 선정이 되어 상패와 상장을 받았다. 처음에 '책읽는 가족'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날아갈듯 기뻛고, 가족 모두가 책을 잘 읽고 따라주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상이라서 아이에게 무척 고마웠다.

우리 아이가 창의력이 경쟁력인 미래에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책을 통해 배우길 희망하면서, 부모로서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이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아는 만큼 이룰 수 있고 소중한 자신을 만드는 데에는 독서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우리 가족은 도서관 찾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계 최초 엄마 독서 지도사 개념을 도입한 대학교수이자 교육연구가인 버니스 E. 켈리넨은 “책을 읽는 어린이들은 자신감에 차 있고 활달하며, 자기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자기 자신에 관한 사고를 펼쳐나가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해 낸다. 그리고 독립심과 자존심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독서는 인간의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어린이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김포도서관과 함께하는 독서생활에 행복을 느끼면서 우리 가족은 책 읽기의 전도사가 되었다. 독서는 바쁜 일상에도 멈춰 서서 돌아볼 기회를 주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며,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읽은 대로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이거나, 혹은 습관적이거나

글 오지영
일산동고등학교 교사

사랑스런 우리 동네 도서관

주말 아침이라면 모름지기 늦잠을 좀 자 뒤야 한다. 허겁지겁 살았던 한 주간의 뻘뻘한 시간표를 의도적으로 형클어뜨리며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 마땅하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아침 식사도 평소보다 조금 게으르게, 천천히 한다. 그리고 어디 가까운 산에라도 가는 것처럼 배낭을 챙겨 든다. (물론 산에 가려는 것은 아니고...사실 나는 등산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발걸음도 가벼이, 약간의 기대와 허기(!)를 품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 한다. 산책의 끝에는 우리 동네 도서관이 있다.

우리 동네 도서관은 한 마디로, 사랑스럽다. 거의 모든 동네가 그 나름대로 사랑스런 도서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리 대단한 자랑거리는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나는 우리 동네 도서관만큼 사랑스런 곳은 없다고 우기고 싶다. 도서관의 생김새를 따진다는게 좀 우스울지 모르나 우리 동네 도서관은 지나가던 길에라도 들어가보고 싶을 만큼 예쁘고 아담하게 생겼다. 집에서부터 천천히 걸어갔다면 적당한 산책으로 알맞을 만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도서관 뒤편으로는 산이라 하기엔 좀 먼구스럽고 그저 작은 동산이라 부를 만한, 도토리나무 특 특 떨어지고 진달래와 벚꽃도 피는 제법 우거진 숲이 있어 아늑한 운치를 더한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우선 최대한 천천히 책 구경을 한다. 그 곳에 머무는 시간만큼은 그 책들이 다 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부자가 된 기분인데, 그게 아주 꽤 괜찮다. 눈여겨 보았던 책들은 대개 자기 자리에 정돈되어 있지만, 때때로(아마 신간이 들어왔

거나 해서) 책들의 배치가 살짝 바뀌어 있으면 금세 눈치를 채는 편이다.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가지런한 책등을 피아노 건반 만지듯 손가락으로 스쳐보고, 은은히 풍기는 종이와 잉크와 세월의 냄새를 음미한다. 새 책에서는 새 책의 냄새가, 묵은 책에서는 시간과 손때가 더해진 또 다른 책 냄새가 난다. 특별히 찾는 책도 없고 그저 읽을거리가 다 떨어져서 내키는 대로 책을 골라가려고 마음먹은 날은, 서가 사이로 이리저리 지나다닐 때마다 책들이 저마다 자기 목소리로 속닥거리거나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다. 학교 복도를 지나가면 닫힌 교실 문 안쪽에서 아이들이 ‘숨죽여 떠드는’ 소리 비슷하다. (이쯤 되면 병인가?)

문학서와 역사서와 여행서가 꽂혀있는 서가들은 저마다 다른 냄새와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되도록 편식하지 않고 책을 골고루 읽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역시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800번, 문학 서가이다. 마침내 세 식구가 읽을 책을 배낭 가득(요즘은 1인당 대출 한도가 무려 7권이다!) 빌려가지고 돌아와서 침대 머리맡에 쭉 꽂아놓으면, 월동 준비하며 제 보급자리에 도토리를 욱심껏 쟁여놓은 다람쥐같은 기분이라까, 만족스러워라...배가 부르다.

도서관의 추억

오래된 기억 한 켠에 생생하게 찍혀있는 또 다른 도서관의 이미지가 있다. 학교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고 조금 컴컴한 나무 복도와, 한약방의 약재함처럼 좁은 서랍들을 촘촘히 달고 있는 도서관카드 보관함이다. 도립도서관이 하나 있긴 했지만, 버스로 한 시간 남짓 가야하는 터라 일부러 견학이라도 시켜

준다면 모를까 그야말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기에 고등학교에 가서야 만난 학교 도서관이 나에게 첫 번째 도서관이었다.

개가식 도서관이 없던 시절이라 서가는 구경 한 번 해보지도 못했고, 접수대에서 담당선생님께 대출신청서를 써서 제출하면 문 뒤의 비밀스런 공간으로 들어가신 선생님이 책을 한 권씩 찾아서 내 주셨다. 입시 공부의 압박 속에서도 그곳에서 해세의 단편들을 만났고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애타게 기다리며 읽어나갔다. 어둡고 고요한 저 문 뒤에 보물창고처럼 책이 잔뜩 쌓여 있을까... 항상 한 번 들어가봤으면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잘 말씀드리면 한 번쯤 허락을 받을 수도 있었으려면, 감히 그런 바람을 드러내기에 나는 많이 소심한 아이였다. 허락된 점심시간은 짧았으니 책을 빌릴 기회도 딱 한 번. 애써 책 목록을 뒤져 신청서를 내도, 누군가 이미 빌려간 후라 책이 없으면 빈손으로 그냥 돌아와야 했는데 그 순간의 실망스러움이 아직도 생생하다. 제목을 아는 책도 별로 없고 이름을 아는 작가도 몇 명 없는 데, 진초더미에서 바늘 찾듯 도서관카드 보관함을 칸칸이 열고 가나다순으로 정리된 책 제목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오늘은 운이 좋아서 이 책을 빌려볼 수 있으려나,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접수대 앞에서 서서 기다리던 기억. 부록처럼 책 뒤에 꽂혀있던 얇고 얇은 독서카드와 손글씨로 적힌 날짜, 누군가의 이름들.

사랑스런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환하고 말쑥한 개가식 서가 사이를 맘껏 거닐며,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잠시 소유할 수도 있는 수많은 책 속에서 눈과 마음이 동시에 충만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노라면, 아, 고마워라, 이런 격세지감이라니... 늦은 밤에도 문이 열려 있고, 다른 도서관의 책도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하루만에 우리 동네로 배달해 준다. 도서관

관의 놀라운 발전, 축복있으라!

아, 데미안!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던 어린 시절의 추억은 내게 없지만, 다행히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내 어머니는 외판원이 방문 판매하던 계몽사나 창비의 소년소녀 명작 전집을 들여놓아주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말단공무원 아버지의 월급을 쪼개기엔 많이 부담스런 가격이라 여러 번 망설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사정은 아랑곳없이 나는 책상자를 뜯으며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전집류가 그렇듯이 그 책들이 전부 재미있지는 않았고, 수십 번 되풀이 읽게 되는 책이 있는가하면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맨 나중에 한두 번만 읽은 책도 있다. ‘몽실언니’같은 친근한 이야기도 있고, ‘류슬란과 류드밀라’같은 이국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제목의 뜻도 모르고 읽었던 ‘한초군담’도 있었다. 친구네 집에 놀러가보면 위인전이나 세계 명작류의 전집을 한두 가지 썩은 다들 갖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든 없든, 아이들에게 엄선된 ‘명작’ 내지는 ‘고전’을 읽게 하는 것을 학교에 보내는 일처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다. 중학교 1학년 때, 생일 선물로 뭘 사주랴 묻는 삼촌에게 조숙한 표정으로 ‘데미안’을 사달라고 하고는, 깜짝 놀라는 어른들을 보며 우쭐했던 기억도 난다. 내가 그 책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비스런 소년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괴롭히는 나쁜 녀석을 어떻게 혼내 주었나 하는 식으로 즐거리를 대충 읊으며 아는 척을 하면 친구들이 제법 ‘뭔가 있는 문학소녀’인 것

처럼 생각해 주는 것이 좋았던 것도 같다. 그러니까 흥내만 낸 엉터리 읽기였던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 데미안을 다시 읽었을 때, 어린 시절 내가 그 책에서 얻은 것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더욱 놀라웠다. 그리고 결국 그런 경험들이 국어 교사로서, 문학애호가로서 지금의 내 모습을 이루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아이들에게

가끔 교실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집에 꽂혀있는 책이 거의 없거나 독서경험이 너무 빈약한 경우를 대하면 많이 안타깝고 당황스럽다.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전혀 식지 않았고 형편도 나아졌는데 아이들은 예전만큼 책을 읽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는데, 무언가가 변해서 책을 안 읽는 것인지, 책을 안 읽어서 무언가가 변해가는 것인지가 늘 헷갈린다. 책읽기가 왜 중요한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은,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의미는 있으나 효과가 전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들을 ‘유혹’하려고 노력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본질적으로 책읽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다르지 않아서 사실 되게 재미있는 놀이일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데, 나는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정돈된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 그냥 내가 겪은 것들에 대해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로 들리기를 바라며 맛있어 보이는 양념을 좀 쳐서 들이미는

것이다. 흥미로운 요소를 가진 작품을 소개할 땐 줄거리를 슬슬 흘리다가 막 재미있어질만 할 때 푹 끊어버린다. 나의 국어 수업은 그래서 때때로 만담 비슷하게 흘러가기도 한다.

고전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야기할 때 ‘고전이란 모두가 칭찬하지만 아무도 안 읽은 책’이라는 마크 트웨인의 날카롭고 정직한 농담 한 조각으로 시작하여(아이들은 크게 공감한다), 이해도 못하는 ‘데미안’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잘난 척하던 어린 내 모습을 고백한다. 그리고 고 3이 되어서 만난 헤세의 단편들을 미처 다 못 읽고 서랍에 넣어두었을 때, 그게 무슨 숨겨둔 사탕과자도 아닌데 중간고사를 앞두고 밤샘 공부를 하던 내가 얼마나 그 책을 다시 꺼내고 싶어 애태웠는지 말해준다. 그리고 헤세를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문과에 진학했으나 정작 독일어 공부에 영 맞지 않았던지 독일어를 좀 해 보라고 하면 벌컥 화를 내는 내 선택의 이야기도 들려 준다. 헤세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한 사람의 인생에 그런 식으로도 영향을 주는 작가더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소설이 있는데 독서 경험이 좀 있는 조숙한 학생이라면 지금 재미있게 읽을 만하다는 말을 슬쩍 덧붙이면, 며칠 후엔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헤세를 찾는 학생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게 되는 순간이다.

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깨달음이나 감동이나 이야기꾼으로서 작가의 말썽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재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재미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그 책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그냥 중단한다. 읽을 책은 너무나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은 ‘습관’의 문제인데, 이것은 책 읽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나의 결심과도 관련이 있다. 재미가 있어서 책읽기를 좋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책읽기가 취미에만 머무를 위험이 있고, 결국 매일 처리해야 하는 일상의 온갖 일들이 내 시간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면 책읽기는 항상 우선순위에 서 밀려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책읽기는 세수하고 밥 먹는 일처럼 완전한 일상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분량에 있어서는 한 줄이든 한 페이지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매일 무조건 읽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는다. 가방에 한 권, 잠자리 옆에 한 권, 교무실 책상 위에도 한 권, 언제나 손 닿는 곳에 책을 두는데 그러다보면 동시에 두 세권의 책을 읽고 있는 경우도 많다. 100권의 책을 읽어 내겠다는 목표는 지키기 어려울 수 있지만, 매일 읽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나는 사람만큼이나 자발적이면서, 대개의 경우 여간해서는 여행을 멈추는 법이 없는 것이다.

-스티븐 킹-

사족

책읽기에 대한 나의 소신이라까, 방식이라까...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족을 굳이 덧붙이려고 한다. ‘책 읽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의 책읽기는 우선 ‘자발적’이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책읽기를 ‘좋아해야’하고 그 일을 통해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즐거움을 느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여름호의 책읽는 스승으로
일산동고등학교 심재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자제력도 습관이다!

「그림이 된 임진왜란」

• 저자 _ 김시덕 • 출판사 _ 학교재
• 2014.05.30. • 360p.

글_황원규
경기도립여주도서관



침략을 선언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얼마 전 '명량'이라는 영화가 짧은 기간에 관객 수 천만을 넘어서며 온 국민을 영화관으로 불러 모았다.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영웅 이순신 이야기가이었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면서 어려운 나라 사정과 맞물려 흥행에 성공한 듯하다. 꽤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TV드라마에서도 충무공 이순신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었고 재미있게 봤던 터라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 영화를 감상했다. 정말 이순신은 우리나라를 구한 명장임에 틀림없다. 영화를 본 후에도 한동안 임진왜란 중에 일어난 사건이나 인물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란 전체에 관련된 내용을 방영하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런데 마침 서에 유성룡의 「징비록」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방영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드라마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징비록」을 정독했다. 「징비록」은 유성

룡이 임진왜란 기간 중 국정과 전쟁의 총 책임을 떠맡고 무사히 전쟁을 마친 후에 쓴 임진왜란의 전쟁사이자 회고록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손들에게 미리 경계하고 대비할 것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필한 것이다.

그러던 중 또 한권이 책이 눈에 들어왔다. 「징비록」이 임진왜란을 조선의 입장에서 쓴 책이라면, 그 책은 적국인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다. 그것은 고문헌 연구를 통해 전근대 일본의 대외 전쟁 담론을 추적하고 있는 '김시덕'의 「그림이 된 임진왜란」이다.

이 책은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17~19세기에 걸쳐 일본에서 발행된 문헌에 들어있는 삽화를 300컷 정도 싣고 있으며 이것을 시간흐름에 따라 나열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후 사정과 전개과정, 전쟁이 끝난 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선 문인, 명장과 의병장 등을 일본 문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이 특별한 점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일본인의 입장에서 삽화를 통해 시각화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진왜란 중에 조선에서 가져간 서적이나 인쇄술의 덕으로 일본의 문고에 급속히 늘어나고 출판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현재의 정세가 확립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치룬 최대의 대외전쟁인 임진왜란을 정리해서 문헌으로 만들 필요가 생겼을 것이다. 이 문헌들의 삽화를 발췌해서 만든 저자의 「그림이 된 임진왜란」은 적국인 일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일본인들이 전쟁사를 다룬 문헌을 만들면서 기본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유성룡의 「징비록」이라는 점이다. 「징비록」은 17세기 후반에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나중에 편집되어 「조선징비록」이 된다. 저자도 이 책에 수록된 삽화의 장면이 「징비록」에서 기술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조선의 사정에 밝지 않은 일본인들이 우리의 문헌을 참고하면서 「징비록」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수록된 삽화를 보면 그림만으로 이해하기 힘

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삽화와 관련된 원문과 저자의 친절한 설명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 일본인들의 시각으로 서술된 문헌에 포함된 삽화이므로 우리가 봤을 때 다소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 일본의 시대상이나 그들의 전쟁관, 한·중·일 관계를 보는 시선 등 그들이 보는 국제관계는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문헌의 삽화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인들은 임진왜란을 조선과 일본의 전쟁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어쩌면 일본인들에게 조선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나 도구이고 임진왜란은 명과 일본의 대결이며 나아가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이한 점은 우리가 전쟁과정이나 영웅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데 비해 일본인은 이것에 신화적인 요소를 가미한다는 점이다.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전쟁을 치룬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한다. 현재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제력도 습관이다!

마시멜로 테스트

• 저자 _ 월터 미셸 • 출판사 _ 한국경제신문사
• 2015.01.20. • 348p.

글_신성욱
경기도립광주도서관

2014년 12월 31일 자정, 또 다른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재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물론 담배값 인상 때문에 금연, 고작 3층 계단을 오르며 에베르트 정상에 오르는 것만 같은 호흡을 내뿜는 힘겨운 몸을 가누기 위한 다이어트, 내가 태어난 모국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외국인을 만나면 피해 다니기 바빴던 수고스러움을 덜기 위한 영어공부 등 뜨거운 새해의 다짐과 함께 말이다. 하지만 어떠한 유혹도 견뎌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결의에 찬 다짐은 불과 2015년의 두 장의 달력이 채 넘어가지도 않은 지금, 돌아오는 2016년에 새로운 다짐에 모든 것을 넘겨버리고 유혹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하찮은 나의 자제력에 자존감을 잃어갈 때 쯤 기업 오너의 땅콩회항, 수년 동안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했던 유명 정치인의 성추행, 연예인들의 각종 사건 사고 등 한순간 자제력을 상실한 유명인의 기사가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충동적인 행동에 따른 결과의 정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작은 유혹에도 언제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다. 왜 우리는 달콤한 인내심의 결과를 쉽게 쟁취하지 못하는 것일까?

국내 누적 판매부수 100만부를 돌파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에 영감을 주었던 '마시멜로 테스트'는 심리학자 월터 미셸 박사에 의해 1960년대 후반 스탠퍼드대학교 부설 빙 유치원의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아동기에 나타나는 만족 지연능력과 자제력을 가능케 하는 인지 메커니즘에 대한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최초의 실험이었다.

유치원에 마련된 '서프라이즈 룸'에서 아이들에게 각자 취향에 따라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해놓고 당장 가질 수 있는 한 개와 연구원이 돌아올 때까지 15분을 기다렸다. 가질 수 있는 두 개 사이에서 선택하게 하며 자제력을 관찰하는 단순한 실험이었다. 그 결과, 기다림 없이 한 개를 선택한 아이도 있었으며, 자제력을 발휘하여 두 배의 선물을 쟁취한 아이도 있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마시멜로 테스트'의 이야기이다.

'도대체 왜 인간의 자제력은 개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란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한 학자의 끈질김은 '마시멜로 테스트' 수년 후 테스트에 참가했던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 이어졌다. 달콤한 유혹을 이겨낸

스탠퍼드대학교
인생변화 프로젝트

마시멜로 테스트



아이들은 눈앞에 놓인 한 개의 선물을 선택한 아이들에 비해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SAT) 점수가 평균 210점 높았으며, 좌절과 스트레스에 쉽게 대처하고 각자 세운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계획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체질량지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물론, 유치원에서 선택한 작은 마시멜로 하나가 개인의 인생을 당연한 성공으로 이끌지는 못하겠지만 유혹에 대처하는 자제력의 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였다.

미셸 박사는 자제력의 차이를 인간의 뇌 속의 '뜨거운 충동 시스템'과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 두가지 시스템의 작용에서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뜨거운 충동 시스템의 활성화는 즉각적인 행동을 불러 일으킨다. 배고플 때의 식욕과 같이 유혹적인 자극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 신속하고 충동적인 행동방식을 끌어내고, 위협이나 위험을 느낄 때면 두려움과 자동 방어 태세, 탈출 반응 등을 일으킨다. 유아원생이 마시멜로를 먹도록 이끌고,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피자를 덥석 물게 하며, 흡연중독자가 끊은 지 며칠도 안 돼 담배를 다시 찾게 이끌고, 성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 객실 청소부를 붙들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마시멜로 테스트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자기통제 노력과 미래 지향적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사고·행위·감정을 규제하며 창의성과 상상력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목적 추구를 방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제력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기 쉬운데, 특히 단기적으로 지나가는 스트레스가 아닌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 작용하는 전전두피질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박사는 주장하고 있다. 인간이 상황적으로 적절한 자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충동 시스템'과 '차가운 억제 시스템'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두 시스템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나이와 상관없이 자제력을 발휘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지금'을 차갑게 하고 '나중'을 뜨겁게 하는 것이다. 눈앞의 유혹을 시간·공간상으로 멀리 밀어버리고 멀리 있는 결과를 마음속 가까이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다.

흡연자의 경우 '지금'의 충동적인 흡연 욕구를 '차가운 억제 시스템'으로 자제시키고 장기적인 결과 즉 흡연

으로 인한 폐암 등 ‘나중’에 초점을 맞췄을 때, 흡연욕구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반복적인 ‘지금’과 ‘나중’의 시스템 적용을 통해 자제력을 습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자제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억제 시스템’을 자동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만약에 계획’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 ‘만약에 계획’이란 바람직한 행동을 실행 계획으로 정해 놓고 관련된 상황적 신호가 발생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연습을 통해 강화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오후 5시 종이 울리면 교과서를 읽을 거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일이 발생해도 무시할 거야” 등의 의식적인 행동계획을 세우고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유혹이 발생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뇌의 전달 신호를 통해 자제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마시멜로 테스트’에서 들어난 미셸 박사의 흥미로운

과학적 이론은 유혹에 대처하는 자제력이 개인의 노력에 따라 습관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혹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뜨거운 충동 시스템’과 자제력을 발휘하는 ‘차가운 억제 시스템’의 적절한 조화를 추천적으로 반복적인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다양한 실험과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작게는 개인의 삶 속에서 작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작은 목표에도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더 크게 보자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제력이 무너진 한 개인의 충동적인 선택으로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경우도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 낳은 극단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미셸 박사는 자제력에 관한 연구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에 빗대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잠깐에 기다림 끝에 손에 짚 수 있는 달콤한 마시멜로 두 개를 포기한 채 당장 눈앞에 놓인 한 개를 선택한 그 누구라도 자신을 바꾸고 싶은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제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 ▶ 추천도서 종합목록
- ▶ 행복한 책 읽기 속으로 | 일반
- ▶ 학교에서 함께 읽고 싶은 책 | 청소년
- ▶ 책이랑 나랑 | 어린이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추천도서 종합목록

추천기간 : 2015. 1. ~ 2015. 3.

일반

분야	도서명	주제	저자	출판사	추천인
문학	내 인생에 너만 없었다면	따뜻한 지혜와 사려 깊은 처세의 기술	프랑수아 들로르	책담	김포 정은성
	초록가죽소파 표류기	젊은이들의 고민과 위로를 담은 성장소설	정지향	문학동네	평택 박상미
	풍년식당 레시피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 레시피	서성란	이리	포천 신유영
	양배추 볶음에 바치다	나이 들어감에 대한 인생 찬가	이노우에 아레노	문학수첩	김포 노경아
인문	나는 아직도 사람이 어렵다	사람에 치이는 당신을 위한 관계심리학	강은호	문학동네	중앙 박제연
	행복 성찰	소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삶	김권태	우리교육	중앙 김민지
	미움받을 용기	가치있는 삶을 만드는 용기의 심리학	기시미 이치로	인플루엔셜	광주 조선경
교육	세계최고의 학교는 왜 인성에 집중할까	창의 인재 교육법	최유진	다산에듀	평택 권미향
	상처 주는 것도 습관이다	아이 마음 상처 아물게하는 엄마의 치료비법	이임숙	카시오페아	포천 최영심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의 모든 것	정광	김영사	중앙 엄영남
사회과학	모모세대가 몰려온다	10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김경훈	흐름출판	김포 노경아
	유리감옥	디지털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	니콜라스 카	한국경제신문	중앙 강미자
	미래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미래변화를 살펴보는 장기미래예측서	박영숙	교보문고	김포 김관혁
과학	(심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밤하늘 이야기	과학, 역사, 신화를 품은 별자리 이야기	에밀리 윈터번	갈매나무	중앙 홍은경
	탐욕의 울타리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한 양심선언서	박병상	이상복스	여주 황원규
	늑대는 어떻게 개가 되었나	최신 과학 이슈를 다룬 과학에세이	강석기	MID	평택 김혜정
일반교양	미술품 잔혹사	세계적인 미술품들의 도난에 관한 이야기	샌디 네언	미래의창	평택 서민혜
	파리의 심리학 카페	힘든 당신을 위한 작은 위로	모드 르안	갤리온	중앙 이진형
	스마트 동의보감	한의사가 쉽게 풀어쓴 한의학이야기	백태선	글과생각	중앙 박혜인
	(우리 가족 주치의) 굿닥터스	현직의사 76명이 풀어쓴 건강백서	대한의학회	맥스미디어	김포 박현정

아래 도서들은 ‘사서와 함께 책읽기’
홈페이지(<http://happylib.or.kr>) 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	도서명	주제	저자	출판사	추천인
문학	(청소년을 위한)나는 말랄라	노벨평화상 수상 소녀의 자전에세이	말랄라 유사프자이	문학동네	중앙 김숙진
	소원을 비는 나무	환상적인 여행을 하는 소녀의 성장동화	윌리엄 포크너	이슈	광주 김진숙
교육	5백년 명문가의 독서교육	5백년 명문가의 자녀 독서교육 비법	최효찬	한울수북	평택 박치성
사회과학	10대, 우리들의 별을 만나다	청소년 진로가이드북	이랑	드림리치	평택 권미향
과학	과학은 놀이다	놀이로 파헤친 과학적 원리	최원석	궁리	포천 장주택
일반교양	십대를 위한 인성 콘서트	청소년기의 인성의 기초 제시	권순이	꿈결	포천 임유라
교전	신분이야기	힘난한 출셋길 속 신분탈출 옛이야기	임완혁	휴머니스트	중앙 박윤정
	구운몽 :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아니더냐	인생의 덧없음	나라말	나라말	중앙 엄영남

어린이

분야	도서명	주제	저자	출판사	추천인
어린이	알류산의 마법	자존감과 이타심 갖기	최영민	분홍고래	중앙 박혜인
	아리프의 희망편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의 가치	정리태	출판인	포천 이민섭
	숫자가 우수수수	재미있게 풀어낸 숫자이야기 책	브루노 다모레	청아람미디어	김포 김문희
	내 용돈 다 어디 갔어?	쉽고 재미있는 용돈 사용법	박현숙	팜파스	광주 신성욱
	새들은 왜 깃털이 있을까?	다양한 깃털의 쓰임새와 자연의 신비	멜리사 스튜어트	다섯수레	평택 서민혜
	블랙아웃	어린이 눈에 비친 우리 사회의 자화상	박효미	한겨레아이들	포천 최영심
유아	짜증방	쉽게 짜증내는 아이와 엄마를 위한 동화책	소중애	거북이북스	김포 정은성
	흑룡만리	제주도 발담에 얹힌 흑룡만리 이야기	박소명	우리아이들	중앙 김진경
	친구가 자꾸 놀려요	친구와 올바른 관계 형성하기	베스 브래컨	노란우산	중앙 정은교
	엄마 고마워요	엄마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의 고백	정해왕	국민서관	포천 장주택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일반추천도서

- ▶ 문학
- ▶ 인문
- ▶ 교육
- ▶ 사회과학
- ▶ 과학
- ▶ 일반교양





내 인생에 너만 없었다면

프랑수아 롤로르
책담 | 2014 | 399p.

경기도립김포도서관 정은성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따뜻한 지혜와 사려 깊은 처세의 기술을 배우는 책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나와 다른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꾸삐 씨의 행복여행’의 작가 롤로르와 프랑스가 가장 사랑하는 마음주치의 앙드레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담았다.

롤로르와 앙드레는 불안성 성격, 편집성 성격, 연극성 성격, 강박성 성격, 자기애성 성격, 분열성 성격, A유형 행동, 우울성 성격, 의존성 성격, 수동공격성 성격, 회피성 성격 등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힘든 성격”을 11가지로 구분하여 차례대로 설명한 후, 이러한 “힘든 성격” 유형의 정의와 분별하는 방법, 처방과 치료법을 알려주고 이러한 성격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라”와 “이렇게 하지 말라”로 나누어 제시한다. 그리고 “힘든 성격”을 지닌 사람들을 잘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들을 말 그대로 좀 더 잘 받아들이다면, 그들의 행동을 미리 예상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이런 “힘든 성격”이 특별한 인물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나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책 속의 질문지를 통하여 확인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성격”들을 만나면 피해가기 마련인데 저자들은 대처방법을 알려주며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각각의 성격 유형에 적합한 이 조언들은 저자들의 정신의학 지식과 치료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인생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얻은 것이기도 하다. 혹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초록가족소파 표류기

정지향
문학동네 | 2014 | 159p.

경기도립평택도서관 박상미

사랑과 우정, 가족 간의 갈등, 사회로의 진입 실패, 재능에 대한 회의, 정체성의 혼란 등 오늘날 젊은이들의 고민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성장이야기

소설 『초록 가족소파 표류기』는 출판사 문학동네에서 대학사회에서의 문학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2011년부터 제정한 대학소설상 수상작이다. 책 뒤에 실린 ‘수상작가 인터뷰’에 의하면 『초록 가족소파 표류기』는 본심에서 수상작으로 결정하기까지 오 분도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심사위원 전원이 탁월성을 인정한 작품이다.

‘표류기’라는 제목에서 보이는 대로 이 책은 젊은 청춘들의 사회로의 입사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일종의 성장소설이다. 대학생이나 그 또래가 실제로 겪고 있는 가족문제, 진로에 대한 고민, 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에피소드로 전개하고 있다. 젊은 세대를 대신하고 있는 화자 ‘나’는 지방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 ‘요조’와 보증금 500에 35만원 짜리 자취방에서 동거 중이다. 그곳에 인도 여행 중 알게 된 입양아 ‘민영’이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8살에 여행을 시작해 4년째 세계를 떠돌고 있는 ‘민영’은 ‘카우치 서퍼’이다. 카우치 서퍼란 유스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대신 각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파에서 잠을 자며 여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나’는 내어줄 소파 하나 없는 방에 살고 있지만, “소파를 내어줄 수 있느냐”는 민영의 물음에 흔쾌히 응답한다.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벌고 여행을 하는 카우치 서퍼의 삶이 어찌면 젊은 20대들이 겪는 찰나의 방황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PD시절을 준비하던 ‘요조’와 카우치 서퍼를 자처했지만 이제는 잠깐의 안착을 선택하는 ‘민영’, 언어를 잃어버렸었지만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는 ‘나’ 이렇게 세 남자는 결국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회로 들어선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눈감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이 강요한 사회로의 굴욕적인 입사는 거부하는 젊은이들.

이 책을 통해 또 다른 젊은이들이 힘든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낯선 풍경이 불러올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가 깃든 여행자의 시선으로 사회에 나아가기를 바란다.



풍년식당 레시피

서성란
이리 | 2014 | 344p.

경기도립포천도서관 신유영

우리의 상처, 우리를 치유해주는 따뜻한 레시피가 가득한 풍년식당이야기

따뜻한 제목, 코믹스러운 표지가 나를 이끌었다. 시작은 한 여자와 아기 그리고 겨울이다. 그리고 기이한 얼굴이 똑같이 닮은 두 모녀의 식당. 그 곳을 찾는 상처 안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풍년식당은 주인공 승복의 할머니가 팔던 팔죽을 어머니가 지웠고 다시 승복이 되 살려 그의 딸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곳이다.

이 책에서는 세상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장애를 마주한 시선은 아직도 곱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을 가진 자나 그들의 가족들은 책 속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선 속에서 고통을 받고, 스스로의 가치관에 혼란을 주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다. 얼굴이 똑 닮은 두 모녀 역시 장애를 갖고 있다. 엄마 승복은 사람들의 경멸하는 시선에 움추려 들지만, 가장 큰 슬픔은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다. 그 상처는 할머니의 따뜻한 팔죽과 사랑의 레시피로 치유되었다. 그의 딸 선희 역시 친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의 사랑으로 장애가 지워졌다. 소설은 현재와 과거를 끊임없이 오가고 있다.

그것은 현재 내가 살고 있으면서 나를 있게 했던 과거가 종종 생각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읽혀갔다. 산자가 아닌 자들이 불쑥 나타났다. 특히 승복의 할머니가 승복에게 자주 나타나 승복의 기억을 이끌며 이야기를 끌고 나간다. 죽은 할머니의 등장이 그리 놀랍지는 않았지만, 다른 죽은 이들이 나타난 것은 흥미롭게 읽었던 일본소설 느낌과 비슷했다. 복잡하지만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 소설은 술술 잘 읽혀나갔다. 그러나 만약 나였다면? 이라고 대입해보니 쉽지 않았다. 내가 승복이었다면, 내가 그의 엄마였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다 읽고 난 후에는 미소가 띄어졌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은 편치 않았음은 이 책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이들의 모습이 나의 마음 속 치부를 들킨 것 같아서인 것 같다.



양배추 볶음에 바치다

이노우에 아레노
문학수첩 | 2014 | 239p.

경기도립김포도서관 노경아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야말로 축복이고 행복임을 깨닫게 해주는 인생 찬가

환갑. 예전 같으면 '할머니'로 불렸을 연령이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60대 초반의 여성에게 '할머니'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도 이 책을 읽고 나면 더 이상 '할머니'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여성의 감정과 일상을 섬세하게 그려내어 페미니즘, 시마세 연애문학상, 나오키상, 중앙공론문예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작가는 60대 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야말로 축복이고 행복임을 전하고 있다.

이 책은 도쿄 한 번두리 동네의 아담한 상점가에서 코코야라는 반찬 가게를 하는 환갑 전후의 세 여성-코코, 마쓰코, 이쿠코의 이야기다. 60대 초반의 사장 코코, 11년 전 개업 당시부터 함께 해온 마쓰코와 최연장자이지만 신입인 점원 이쿠코. 이 세 사람에겐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사연들이 있다. 코코는 이혼한 지 벌써 8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전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고, 마쓰코는 소꿉친구였던 연하의 첫사랑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버림받아 30년이 넘도록 홀로 살고 있다. 이쿠코는 옛날에 어린 아들을 잃은 후 줄곧 원망해온 남편이 반년 전 세상을 떠난 뒤 깊은 죄책감과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세사람은 제각기 슬픈 과거, 안타까운 현실을 안고 있지만 계절마다 제철 채소며 생선을 사용하여 맛있는 반찬을 만든다. 무심한 척 서로를 배려하고, 부러 그러나 싫을 정도로 토닥거리기도 하지만, 일이 끝나면 한잔 마시며 언제 그랬냐는 듯 수다를 떨고 평범한 일상을 에너지 넘치게 살아간다.

이 책은 환갑이 넘었다고 하면 인생의 낙은 사라지고 외롭고 쓸쓸한 여생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깨고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삶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에 의기소침해 하는 분이 있다면《양배추 볶음에 바치다》의 귀엽고 씩씩한 주인공들을 통해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보길 바란다.



나는 아직도 사람이 어렵다

강은호
문학동네 | 2014 | 296p.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박재연

인문

오늘도 사람에 치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인간관계 갈등 사례를 심리학 및 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책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갈등과 마주하게 된다. 누군가는 갈등을 “당연히 그러는 것 아니겠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혹자에게는 ‘사람이 두려워질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며, 우리는 갈등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알아야 한다. 갈등은 왜 발생할까? 개인간 관계에서는 ‘이해의 부족’, 상황 측면에서는 ‘공감의 결여’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다움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저런 성격이지?”, “왜 이렇게 밖에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들이 쌓이면서 결국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한없이 커질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저자는 먼저 답을 던진다. 바로 ‘나’를 깨닫고 달래며 ‘너’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이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불완전하며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따라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신과 상대방을 다독일 줄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항상 조금하고 불안해하며 조그마한 문제도 받아들일 수 없던 스스로를 뒤돌아보아야 하며, 그런 타인이 있다면 내면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실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 일상적인 예부터 심리학과 정신병리학을 아우르는, 폭넓은 이야기들과 실험들을 통해 우리가 갈등상황에 공감할 수 있고 스스로 실천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책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책 속 에필로그에 인상적인 한 구절이 있다. “너를 바꿀 수는 없다. 너를 이해할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는 잘 제어하는 ‘절제’의 태도를, 상대에게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상대를 이해하고 그에 발맞춰 내가 바뀌어야 할 때, 갈등은 사라지고 관계는 자연스레 회복될 것이다.



행복 성찰 : 고전과 우화에서 배우는 자기실현

김권태
우리교육 | 2014 | 172p.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민지

인문

‘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과 성인에게 현직 교사가 이야기하는 소명 찾기를 통해 자기실현으로 나아가는 방법

언젠가부터 서점가에는 ‘행복’을 주제로 한 책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저마다 힐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들이 유행하기 전에는 앞 다투어 ‘자기계발서’가 유행하기도 했다. 이 책 ‘행복 성찰’ 역시 여타 다른 힐링서들과 비슷한 책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고전과 우화에서 배우는 자기실현”이라는 표지의 부제가 시선을 잡아끌었다. ‘이 책은 뭔가 다른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으로 책장을 펼쳤다.

저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화火의 시대’로 규정한다. 속도와 성장을 앞세우는 지금의 시대에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만 나아가니, 다들 너무 멀리 가서 되돌아올 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러한 속도의 시대에 우리 자신이 바로서기 위한 방법으로, 저마다 각자에게 의미있는 ‘소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자기실현의 삶이며, 우울의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책의 내용은 총 15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움의 길’에서 시작해 죽음, 믿음, 고통과 시간, 알아차림, 성취와 지족, 소명, 공부, 직업과 같은 여러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거쳐, ‘공감과 갈등 해결’로 끝을 맺는다. 저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할 주제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다루면서, ‘논어’, ‘맹자’, ‘노자’ 등의 고전과 다양한 우화를 통한 비유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중학교 교사로, 이 책은 저자가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과 소통하며 강의했던 내용을 기초로 쓰여 졌다고 한다. 「행복 성찰」은 모두 다 획일적인 목표아래 공부하는 입시 현실에서 자유롭게 못한 청소년들, 또는 아직도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지만 자신의 삶이 무언가 공허하다고 느끼는 성인들에게 실제적인 힐링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인플루엔셜 | 2014 | 336p.

경기도립광주도서관 조선경

인문

과거의 트라우마에 현재의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말고 진짜 내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는 아들러의 용기의 심리학

알프레드 아들러는 프로이트, 융과 함께 현대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꼽히고 있으나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그의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미움받을 용기》는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프리랜서 작가인 고가 후미타케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을 알기 쉽게 대화형식으로 풀어낸 책이다. 열등감과 자기혐오에 빠져있는 한 청년이 질문을 하고 아들러의 심리학에 정통한 철학자가 대답을 해준다. 이는 마치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연상시키며 청년과 독자들을 동시에 차근차근 이해시켜 나간다.

아들러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프로이트의 원인론을 반박하는 목적론을 내놓았다. 이는 오늘날 상식처럼 되어버린 트라우마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인간은 과거의 특정 사건(원인)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현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인정욕구’를 과감히 포기하라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남의 이목에 신경쓰느라 현재 자신의 행복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

인간의 심리와 행동은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수동적 사실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느냐’라는 주관적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아들러 이론의 핵심이다.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다. 과거의 트라우마적 경험이 현재의 내 삶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놔두지 말고 내 스스로 가치있는 삶을 만드는 진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세계최고의 학교는 왜 인생에 집중할까

최유진
다산에듀 | 2014 | 244p.

경기도립평택도서관 권미향

교육

하버드가 선정한 미국 최고 명문고의 1% 창의 인재 교육법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고의 학교라고 손꼽히는 고등학교인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에서 부부교사로 재직한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진정한 최고의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이야기이다.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는 흔히들 명문이라 불리는 고등학교이며 페이스트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 세계적 베스트셀러 《다빈치코드》의 작가 ‘댄브라운’, 미국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현재 엄청난 열풍을 몰고 오고 있는 한국계 작가 ‘이창래’라는 인재들을 배출해낸 곳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는 왜 하버드가 선정한 ‘최고의 학교’가 되었을까?

이 책에 따르면,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에서는 인생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말한다.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갖추고자 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리를 탐구하며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하크네스 수업방식(토론방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리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들만의 교육방침이 있다.

이외에 예술수업과 스포츠수업을 필수로 가르치는 점, 시간관리와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 봉사활동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중시하는 점 등 모든 교육에 있어서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교육법을 실천함으로써 이상에 가까운 최고의 교육을 실현시키고 있다.

획일화된 지식과 경쟁이 강조되는 우리나라 교육 안에서 학생들의 인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교육의 중요성과 방법을 이 책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처 주는 것도 습관이다

이임숙
카시오페아 | 2014 | 305 p.

경기도립포천도서관 최영심

우리 아이 마음에 난 상처 덧나지 않고 말끔히 아물게 하는 엄마의 치료비법 전수

‘상처 주는 것도 습관이다’ 제목과 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 세상 살면서 사람들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은 상처를 주고 또 받는다. 하지만 어른들보다 미성숙한 존재인 아이들은 어른들의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쉽게 상처받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 이임숙은 15년간 2만 시간 이상 아이와 부모를 상담한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 의사소통전문가이다. 저자는 엄마 출신 전문상담사로서 “엄마의 작은 습관으로 아이는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며, 일주일에 한번 심리치료실에서 한 시간씩 상담 받는 것보다 하루에 30분 엄마가 아이와 대화하는 것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엄마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첫 번째 사람이면서, 사실은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치료사이기도 하기에 엄마가 직접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마음멘토링 방법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매우 쉽고 친절하다. 상황별, 아이유형별로 다양한 상담사례와 참고자료를 보여주고 그런 아이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미술놀이, 독서놀이, 글쓰기놀이, 게임, 대화법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10주 프로젝트로 제시되어 있다. 상담실이 아닌 집이라는 편한 공간에서 엄마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제대로 사랑할 줄 몰라 마음 아파하는 엄마아빠들과 심리치료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하루 30분, 아이 마음에 난 상처에 약을 발라주자. 엄마의 작은 습관으로 자존감 높고 행복한 아이를 만들 수 있다.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정광
김영사 | 2014.11.25. | 540 p.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엄영남

언어학자인 저자가 들려주는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과 정 및 역관 양성 이야기

우리나라의 영어 사교육비 지출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간 6조 5천억 원 규모에 이르고, 토익·토플 시험 고득점자는 넘치는데 정착 외국인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재는 드문 것이 현실이라는 뉴스를 보며, 과거의 외국어 교육은 어떠했는지 궁금하던 차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외국어는 중국어인 ‘한어’였으며, 당시에 ‘한어’를 습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져 전문 외국어 교육제도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기교육, 집중 반복교육, 회화교육 등 현재 못지않은 교육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은 사역원이라는 역관 양성기관이 주로 담당했는데 역관은 단순 통역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외교관과 같은 일을 수행했다고 하며, 세계적으로 이처럼 외교 통역관을 양성하는 국가기관을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한다.

언어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원나라 대에 공용어가 된 한어를 비롯한 몽고어, 일본어, 만주어 및 여진어의 교육의 제도와 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조기교육, 집중 반복교육, 회화위주 통역훈련, 효과적인 교재 등 오늘날의 외국어 교육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음은 물론 더욱 효과적이었던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의 시작과 방법부터 제도와 평가까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책은 언어교육과 역사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한번 읽어볼만 하다.





모모세대가 몰려온다

김경훈
흐름출판 | 2014 | 298p.

경기도립김포도서관 노경아

사회과학

모모세대로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창조하는 새로운 10대의 등장

지금까지 10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끼고 지내며 게임을 좋아하고 웹툰에 빠져 있는 어리고 미성숙한 사고뭉치로 생각했다. 하지만 저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선이 필요없고 어디서나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거대한 가상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으로서 10대를 인식하며, 그들을 모아 모바일(More Mobile)세대 줄여서 모모세대라 정의한다.

이 책은 10대들의 집단적 특성을 세대 차원에서 분석하여 세대로서 우리가 몰랐던 10대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제시한다.

1. 기성세대와 다른 세계에서 자라며 다른 기준과 감각, 두뇌를 가진 모여 모바일 세대로서의 무한한 가능성
2. 머릿속에 든 첫 번째 두뇌와 스마트폰이라는 두 번째 뇌를 모두 활용하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직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아이들의 지적능력
3. 일상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생산과 연결하며 콘텐츠를 기획하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자 감성
4. 무료나눔, 교환신청, 생활정보, 중고거래, 알뜰소비, 구독소비 등의 활동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문화
5. 핏뉘에 목숨 걸고 매칭 감각을 최고의 세련미로 생각하는 10대는 낯선 것을 조합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매칭 마스터
6. 10대만의 정서, 언어와 유머 등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공유하고 공감하고 협업하는 문제해결 능력
7. 신체조건, 사회에 대한 관심, 미적 사야의 숙련성, 소비자로서의 감각, 소비 영역에서의 영향력 등 시민이자 경제인으로서도 충분히 조숙한 세대

저자는 '10대를 모모세대로 바라보면 우리가 몰랐던 잠재력과 가능성이 보인다'며 10대를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모바일 시대, 미래의 변화와 트렌드를 이끌 10대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유리감옥

니콜라스 카
한국경제신문 | 2014 | 367p.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강미자

사회과학

디지털문명 비평가인 저자가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이 주는 편리함과 재미에 빠져 스스로의 능력이 퇴화하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경고메세지

우선 질문이 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외우는 전화번호가 몇 개인가? 만일 30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다면 굳이 이 책의 독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가까운 지인의 전화번호조차 전화기에 의존하고 있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유리감옥의 지인이 니콜라스 카는 디지털문명 비평가이다. 디지털문명 비평가라는 직업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지만, 2010년에 펴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구글 같은 검색엔진이 만드는) 인터넷환경이 인간의 사고능력과 집중력을 파괴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책으로 풀리처상 최종후보까지 오른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의 직업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유리감옥은 사실 뻔한(?) 책이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 것이라는 얘기는 사실 뻔한 얘기 아닌가? 자동화로 인한 노동자의 실직문제, 컴퓨터 오퍼레이터로 전락한 비행기조종사, 환자의 얼굴보다 모니터를 보는 시간이 많아진 의사들의 문제 등은 이미 대중에게도 일반화된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콜라스 카는 이런 뻔한 얘기를 뻔하지 않게,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 주장한다.

오늘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스마트 기기가 smart해질 수록 인간은 무능해질 것이다’라는 그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미래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박영숙
교보문고 | 2014 | 348p.

경기도립김포도서관 김관혁

사회과학

2014년부터 2130년까지 미래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는 장기미래예측서

지금 당장 1분, 1시간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1년후도 아닌 100년후의 세상을 펼쳐보인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임이 틀림없다. 그것도 객관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예측 변화를 말이다. 『미래는 어떻게 변해 가는가』에서는 신기술 개발 전문가 및 과학자들의 전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비꼴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그것도 연도별로 현재부터 2130년까지 시간 순서대로 망라한 것이다. 연도별로 미래의 모습을 나열하면서 우리의 변화될 삶을 상상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 책은 2014년이라는 이미 과거형이 되어가는 시간에서부터 시작하여 100년 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30년에는 인간의 달 거주가 시작되고, 인간과 아주 유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탄생하며, 2080년에는 동계 올림픽 개최지에서 눈이 내리지 않고, 200세를 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의 다가올 100여년 간의 새로운 기술과 역사가 긴박한 이야기들로 가득차 있다. 이 책의 가장 특이한 점은 미래의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우리에게 선보일지를 시간대별로 나열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 시간속에서 어떠한 기술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시간의 흐름속에 과학 기술은 저마다의 속도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책은 미래에 다가올 긍정적이고 편한한 점을 많이 부각하고 있지만, 인간다운 삶의 모습은 많이 부족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기계문명이 발달할수록 이웃간의 사랑이 부족하고,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가 부족하고, 운동이 부족하여 다양한 성인병이 생겨나는 모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또한 시기별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아직은 닥쳐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저자가 제시한 연대기다. 이 책의 내용이 꼭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번 정도 읽고 상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미래의 세상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반가운 신세계를 말이다.



(십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밤하늘 이야기

에밀리 윈터번
갈매나무 | 2014 | 326p.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홍은경

과학

십대를 위한 과학, 역사, 신화를 품은 신비하고 흥미로운 별자리 이야기

사람들은 왜 밤하늘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낭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하늘의 별들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긴 세월을 지나오며 사람들은 밤하늘에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 속에는 많은 역사와 신화, 그리고 과학이 들어있어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나 그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을게 사실이다. 대도시의 광공해(光公害)로 인해 별들은 희미해졌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매우 적다.

이 책은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들과 꿈 많은 청소년 시절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 쓰였다. 저자 에밀리 윈터번은 대학시절 물리학을 전공하며 덤으로 천문학을 배웠고, 또한 왕립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천문학 컬렉션 큐레이터로 10년을 지내며 밤하늘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하늘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그 별자리가 보이는 달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그리스 신화, 천문학사의 의미 있는 발견들, 천문학자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 책을 통해 낭만적인 밤하늘에서 역사와 신화 이야기를 듣고 흥미로운 과학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고대 그리스인이 묘사한 48개의 별자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88개의 별자리에 대하여도 관심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을 계기로 주변이 밝아져서 희미해져 가는 별을 마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별을 보는 것이 힘들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고 살펴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것은 유익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탐욕의 울타리

박병상

이상북스 | 2014 | 280p.

경기도립여주도서관 황원규

인간의 필요에 의해 길들여지거나, 길들여지지 않지만 간혀서 고통 받는 동물들을 위한 우리의 양심선언 이자 자기고발서

환경운동가이자 생물학자인 박병상님이 쓴 「탐욕의 울타리」.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같은 인간으로서 자책감과 불안감이 함께 밀려왔다. 산업축산의 공장식 축사에 갇혀 있는 가축들을 보면서 한가로운 시골풍경에 젖었던 것에서 그랬고, 인간의 탐욕으로 생긴 과잉공급에 맞추어져 불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느라 무분별하게 희생된 것에 미안했다. 인간에게 맛 좋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한발 짝 움직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좁은 축사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생을 마치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연의 일부라는 것에 그랬다.

인간은 수렵과 채취 생활을 시작한 이래 완벽한 자연의 일부로 다른 동물과 함께 순환하며 종을 이어왔다. 채식 위주의 생활을 했지만 주위의 동물들은 그들이 스스로 원하건 그렇지 않건 가축이 되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 수요가 있으면 필요한 만큼 공급이 이루어졌고, 동물들도 어느 정도 본성대로 생활하며 자연스러운 교배가 이루어져 유전적인 다양성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래서 건강할 수 있었고 그것은 인간에게도 이로웠다.

하지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연은 급속도로 파괴되었고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남아도는 것을 소비하기 위한 다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산업축산의 우리에게 갇힌 동물들은 유전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항생제와 성장촉진제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인간에게도 나타났다.

저자는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의 모습이 미래의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며 스스로의 탐욕에 갇힌 인간의 모습을 경계하고 있다.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된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빨리 자각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부족하지만 행복했던 자연스러운 삶으로 돌아가자고 충고한다.



늑대는 어떻게 개가 되었나

강석기

MID | 2014 | 276 p.

경기도립평택도서관 김혜정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소재를 통해 심리학, 의학, 물리학 등의 최신 이슈를 다룬 과학에세이

두려움의 대상인 늑대는 어떻게 사람의 반려동물인 개가 되었을까?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 3,200년 전 남중국 일대에서 늑대가 사람에게 길들여지면서 개로 진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람이 유인원의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오면서 얻은 변이와 같은 진화방향이었다는 것, 특히 신경계와 소화계, 질병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이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사람의 진화와 질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목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보여주듯이 책은 심리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주제로 새로운 과학지식을 보여주며, 편견으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상식을 제대로 고쳐주고, 당연하게 여겨 왜 그런지 의심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작가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와 함께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과학 한잔 하실래요?」, 「사이언스 소믈리에」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우수과학도서로 2년 연속 선정된 과학전문 작가의 네 번째 과학에세이집으로, 과학신문 〈사이언스 타임즈〉에 2013년과 2014년 상반기, 1년 반에 걸쳐 연재된 70여 편에서 추려 최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업데이트한 내용을 실었다. 과학자나 과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에 칼럼으로 연재한 글이기에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보다 해롭다', '날씬해야 오래 산다는 과학상식 믿어도 되나' 등 익숙한 일상의 사례부터 만화, 역사, 시사문제까지 흥미로운 주제에 숨어있는 과학이야기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과학」 하면 으레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각 분야별 내용이 길지 않고 알차게 구성된 연구 자료와 사진으로 부담 없이 과학지식을 얻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일반교양



미술품 잔혹사

샌디 네언
미래의창 | 2014 | 223p.

경기도립평택도서관 서민혜

세계적인 미술품들의 도난과, 그것을 회수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아직도 찾지 못한 세계 여러나라의 미술품에 대한 이야기

고가의 미술품을 훔치는 도둑들과 그 배후에 숨어있는 재력 있는 수집가, 그리고 무모하고 끈질긴 수사관이 등장하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왠지 도둑들은 낭만적 일거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대중들은 그 도난사건에 대해서 절도범들을 비난하기보다 관리를 소홀히 한 미술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있다. 미술품 범죄를 아동학대나 유괴, 살인, 테러보다 덜 중요한 '사치' 범죄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예외 -개인의 수집욕구-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림을 훔쳐가는 일당들의 목표는 바로 '돈'이며 결국 그 절도는 다른 범죄와 연결된다.

샌디 네언의 '미술품 잔혹사'는 바로 이러한 미술품 범죄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무려 400억 원 상당의 윌리엄 터너 작품 두 점이 도난된 사건을 바탕으로 작가는 세계적인 미술품들의 도난과, 그것을 회수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아직도 찾지 못해 어디에선가 잠자고 있을 세계 여러나라의 미술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도난당한 미술품의 추적 과정이 실감나게 그려져 마치 한편의 추리소설을 읽은 듯한 이 책은 미처 되찾지 못한 세계적인 미술품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탄식이 나기도 한다. 시대를 초월한 대가들의 그림이나 조각들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에 책정되었는가에만 그치지 않는다.

진정한 가치는 '후대의 인류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과 그로인해 파생될 수 있는 영감을 제시하는가'이다. 그렇기에 작가는 인류의 보물들을 안전하게 지켜 후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필요로 할 노력에 대하여도 같이 말하고 있다. '미술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미술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보면 좋을 듯싶다.

일반교양



파리의 심리학 카페

모드 르안
갤리온 | 2014 | 295p.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이진형

심리학 카페를 운영하며 19년간 5만명 이상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상담 사례와 치유에 관한 이야기

이 책의 저자인 모드 르안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심리학 공부를 하였고, 혼자 있을때조차 울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심리학 카페'를 열었다. 이후 5만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걸려진 일, 사랑,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 담고 있다.

자기 감정 표현에 서툴고, 과거에 상처로 인해 현재의 삶까지 망가지게 하는 사람들, 인생을 숙제처럼 완벽주의자로 사는 사람들, 타인에 대한 끝없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는 사람들, 과잉보호 하는 부모로 인해 의존적 삶에 길들여져 독립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기만 하지말고, 힘들었던 나를 위해 울어주며,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위로 하고 있다.

아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만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으며, 다가올 미래의 두려움은 '동굴속의 쥐'와 같아서, 작은 쥐의 존재를 모르고 두려움속에 동굴을 바라볼 때는 마치 그 안에 커다란 괴물이 사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 다가가 그 실체를 확인하면 작은 쥐에 불과한 것처럼, 충분히 내 자신 스스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에 대하여, 자신에게조차 담당하지 못한 자신에 대하여, 타인의 시선과 인정과 무조건적인 칭찬에 매달리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알고 있지만 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작가는 매뉴얼적 해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게 아니라, 힘드셨죠? 하고 다정히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있다.



스마트 동의보감

백태선
글과생각 | 2014 | 240 p.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박혜인

일반교양

현대의학 자격증과 한의사 자격증을 가진 한의사가 쉽게 이야기는 한의학의 이해와 모든 것

현대병원과 한의원 중 어떤 병원을 가야할지 고민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현대 의학이 널리 퍼져있는 지금, 한의학과 민간요법을 혼동하기도 하고 한의학의 과학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한의학은 어떤 원리로 치료하고, 한의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치료법인 진맥과 침술, 부항 등의 진료들이 과연 치료 효과가 있을까? 이 책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한 의학을 공부하다 한의사의 길을 가게 된 백태선 의사가 한의학에 대해 쉽게 풀어쓴 저서로 2014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도 선정된 책이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사람을 치료하는 목적은 같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저자는 그 이유를 현대의학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료로 병을 파악하려하고, 반면에 한의학은 철학적이며 주관적인 진료로 병을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의학에서 우리 몸은 자연과 유사하며 자연처럼 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날씨의 추고 더움과 상관없이 36.5℃ 내외로 체온이 유지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항상성은 곧 몸의 조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항상성을 중요시하는데, 한의학은 이를 질병 때문에 항상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조화가 무너져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저자의 관점에서 한 의학을 정의하면 한의학이란 '한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생리적 현상과 병리적 현상을 진단하여 한의학적 치료를 하는 의학'이다. 한의학적이라는 표현은 곧 한의학의 정체성이며 천인상응, 음양오행, 장부론, 기혈론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진, 복진, 맥진 등을 진단하여 한약, 침, 뜸, 부항, 도인안마 등으로 치료함을 의미한다.

책 속에는 이와 더불어 한의학의 역사, 한의학에서 말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 질병과 치료, 이제마의 사상학과 8계절 등 우리가 궁금해 하는 내용이 도표와 사례를 들어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백태선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한 답소를 나누는 듯한 기분이 든다. 평소 한의학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 독자라면 이 책을 기회로 한의학의 세계를 쉽게 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족 주치의) 굿닥터스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맥스미디어 | 2014 | 459 p.

경기도립중앙도서관김포분관 박현정

일반교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직의사 76명이 건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건강백서

TV와 신문, 책과 인터넷 등을 통해 수없이 많은 건강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근거 없는 정보들과 믿을 만한 정보들 중에서 어떤 정보를 믿고 따라야 할 지 막막할 때가 많을 것이다. 이 책은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대한의학회 안전정보위원회 주관으로 의과대학교수와 의료전문가 76명의 뜻을 모아 원고를 집필했다.

책으로 들어가 보면 생활습관, 건강상식, 증상에 따른 접근, 의료상식, 장수비결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의학정보를 5장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각 장별로 분야에 따라 77편의 원고를 독자들이 읽기 쉽게 재구성하였고 건강정보 TIP도 실었다.

책 속의 정보를 하나 소개하자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챙겨먹는 약품 중 하나가 비타민이라고 한다. 비타민은 체내에서 필요량은 적지만,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비타민은 언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식전? 식사 중간? 식후? 정답은 식사 중간 또는 식사 후이다. 그 이유는 지방이 있어야 비타민 복용 후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요?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는 하루에 120mg 정도는 섭취해야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국민의 비타민 C 평균 섭취량은 123mg으로,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고 있어서 특별히 보충제를 섭취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많이 복용하면 간이나 지방조직에 저장·축적되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다양한 음식을 통해 비타민을 섭취하고, 필요하다면 종합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 책은 건강한 사람은 질병을 예방하고, 몸이 아픈 사람이라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건강지식과 상식들을 담은 책으로 성인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학교에서 함께 읽고 싶은 책

청소년 추천도서

- ▶ 문학
- ▶ 교육
- ▶ 사회과학
- ▶ 과학
- ▶ 일반교양
- ▶ 고전



문학

(청소년을 위한) 나는 말랄라

말랄라 유사프자이
문학동네 | 2014 | 271p.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숙진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정권과 맞서며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당당히 일어서던 201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10대 소녀의 자전에세이

이 책은 2014년 역대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인 파키스탄의 10대 소년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자전에 세이다.

말랄라가 살고 있던 파키스탄의 작은 마을 '스위트'가 어느날 과격 테러 단체로 악명높은 '탈레반'에게 장악되면서, 마을은 공포와 침묵에 휩싸인다. 그들은 여자와 어린이의 교육기회를 박탈하여 마을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든 후, 그들 마음대로 군중을 조정하려 한 것이다. 종교 교리를 따라야 한다는 미명하에 교육을 탄압하고, 학교를 폭파하고, 여자들의 외출을 금했다.

그런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11살의 말랄라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탈레반의 악행들을 일기로 써내려가 영국 BBC 방송을 통해 온 세상에 알리게 된다. 학교설립자이자 교육운동가인 아버지의 지지와 응원이 뒷받침되어 말랄라가 전 세계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러한 말랄라의 행동이 탈레반의 집중적인 눈총을 받게 되고, 결국 말랄라는 학교 길의 버스안에서 무장세력의 총에 맞아 죽음의 순간까지 경험하게 된다.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소녀는 16번째 생일에 유엔의 연설 단상에 서게 된다. "우리가 책과 펜을 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책과 펜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 명의 어린이가, 한 사람의 교사가, 한 권의 책이,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난관 속에서 신념을 지켜 나가는 한 가족의 삶과 테러리즘의 공포에 일상을 잠식당한 파키스탄 아이들의 현실 등을 선명하게 들려준다.

문학

소원을 비는 나무

월리엄 포크너
이슈 | 2013 | 148p.

경기도립광주도서관 김진숙



월리엄 포크너의 유일한 동화작품으로 나이 어린 소녀가 환상적인 꿈의 여행을 통해 어른들의 세계를 알아가는 성장 동화

〈소원을 비는 나무〉는 꿈의 형식을 빌려 월리엄 포크너의 소원이 투영된 작품이다. 어린시절 친구이자 짝사랑했던 여인 에스텔의 딸 빅토리아에게 선물한 작품으로 책의 도입부에는 「여덟 번째 생일을 맞는 사랑하는 친구 빅토리아를 위하여 빌이 이 책을 만들다」라고 되어있다.

델시라는 소녀와 여행 안내자 모리스, 동생 디키, 흑인 유모 앨리스와 남편, 앞집 소년, 노인 등의 일행들이 소원을 비는 나무를 찾아가면서 겪는 모험과 좌절,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은 소원을 비는 나무를 찾는 환상적인 마법의 시간 여행을 통해 삶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된다. 작품내용중 성 프란체스코신부가 소원을 비는 나무를 찾는 일행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그럼 너희가 가진 나뭇잎을 내게 주면 내가 그것을 다시 나무에 붙여놓으마, 그 대신 내가 가진 새를 너희에게 한 마리씩을 주도록 하마, 너희가 새에게 먹이를 주고 잘 보살피다 보면, 절대로 이기적인 소원을 빌지 않게 될 거야. 힘없는 것들을 보살피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은 이기적인 소원을 빌지 않는 법이거든.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네, 프란체스코 신부님." 그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서 작가는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찾아 다녀도 그것은 우리 가까운 곳 자연을 통해 서 정신적인 치유의 힘을 준다고 한다. 이 작품으로 월리엄 포크너는 소원하는 바를 이루었고 작품해설에서는 그가 어떻게 소원을 이루었는지를 알려준다. 80여장의 짧은 청소년 동화와 더불어 60여장의 상세한 작품해설이 독창적이며 신선하다. 동화보다 더 흥미로운 작품해설은 이 글을 쓰게 된 작가의 인생 이야기와 해박하고 재미있는 배경지식, 풍부한 해설이 흥미진진하다. 좋은 작품을 읽고 작가와 작품세계의 확장을 위해서 또한 독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이해와 독서습관 형성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접하기 좋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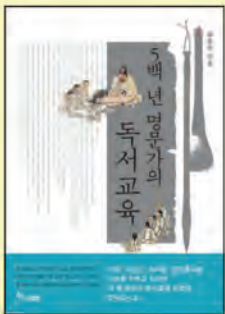
교육

5백년 명문가의 독서교육

최효찬

한글수북 | 2014 | p.306

경기도립평택도서관 박치성



5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우리나라 명문가 집안의 독서교육 비법을 소개한 책

5백 년 명문가의 독서교육은 책을 통하여 정신수양을 쌓고, 책에서 배운 대로 그 내용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이러한 독서 가르침을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생각하여 자기완성이나 자신 인격 수양으로 중요시하였다. 반면에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오로지 과거 공부와 독서를 하는 것을 위인지학(爲人之學)으로 여기고 매우 경계하였다.

임진왜란 명장 이순신 장군의 가문은 원래 무인 집안이었다. 이순신 장군 5대조 이변은 중국어에 능통해 역관(외교관)으로 승승장구하여 무신 집안을 문인 집안으로 바꾼 인물이다. 집안이 문(文)을 중시하고 처음부터 문과를 응시했던 이순신 장군이 훗날 무인으로 드물게〈난중일기〉와 그가 남긴 시편은 문인 가풍 속에서 장군의 독서와 공부가 꽤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 문신 허엽은 그의 장남 허성, 차남 허성, 삼남 허균, 딸 허난설헌과 더불어 '허씨 5문장가'로 유명했다. 아버지 허엽에게 글공부를 배운 허균은 책에 대한 욕심이 커서 중국 연경에 갔을 때 무려 4천여 권의 책을 사서 서울에 싣고 오기도 하였다. 허균은 자신을 글 읽기를 지나치게 즐기는 사람을 뜻하는 서음(書淫)이라 칭하였다. 허균은 수만 권을 읽는 독서광이기도 하지만〈홍길동전〉, 시집〈성소부부고〉등을 남긴 작가였다. 조선 후기 실학과 성호 이익 선생은 〈성호사설〉에서 평생 책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붓 가는 대로 적었다고 한다. 독서 후 기억해야 할 문장이나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는 습관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좋은 독서 비법이다. 이 책은 명문가의 독서교육이 무엇보다도 인간이 먼저 되는 소양교육이 기본이라는 교훈을 자녀독서교육으로 고민하는 부모와 청소년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

사회과학

10대, 우리들의 별을 만나다

이랑

드림리치 | 2014 | 355 p.

경기도립평택도서관 권미향



꿈과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가이드북

‘10대 우리들의 별을 만나다’는 진로전문가 이랑선생님과 신반포중학교 2학년 권혁준군이 만나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를 찾아 떠나는 직업여행을 십대들의 시각과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게 담아낸 책이다.

서초구 중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거쳐 법률, 경제, 과학, 사회, 스포츠, 의료 등 다양한 직업군을 일곱 개의 군으로 나누어 가장 만나고 싶은 멘토 15인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멘토들을 10여명의 기자단 학생들이 멘토에 대해 공부한 뒤 6개월에 걸쳐 직접 찾아가 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꿈을 이루게 된 과정과 자신만의 성공 노하우를 실현한 방법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나갔다.

책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인지, 그 꿈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선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 등 청소년들이 어려워하는 진로고민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설문결과 선정된 멘토들과의 인터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 영화, 스포츠, 국제, 경영, 법률 등 각 분야의 직업군을 대표하는 멘토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이루어낸 직업을 향한 노력과 적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안내해주고 있다. 그것에 더해 해당 직업군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직업들에 대해 이랑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진로 방향을 잡아주고 있다.

이 책은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고민할 때 읽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실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진로에 대해 또는 꿈에 대해 고민이 많은 청소년이라면 한번쯤 읽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덜고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기를 권해 본다.

과학

과학은 놀이다

최원석

공리 | 2014 | 368 p.

경기도립포천도서관 장주택



과학과 놀이를 접목시켜 생활속 과학을 설명하는 과학은 놀이다. 아이도, 어른도, "놀이가 되는 순간, 과학이 재미있다!"

최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에스에프(SF) 영화 <인터스텔라>가 큰 화제다. 일반상대성이론, 블랙홀, 웜홀 등 어려운 물리학적 개념들이 블랙홀처럼 감명하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과학을 쉽게 놀이로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그리고 수학분야까지 청소년들은 과학을 어렵게만 생각한다.

인타깝게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많은 사랑을 받던 과학은 중학교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아이들에게서 멀어진다. 초등학교 때 과학자가 꿈인 아이들도 중학교로 올라가면 과학은 자신과 상관없는 과학자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과학이 과학자가 되기 위한 과목일 뿐 자신의 생활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지나칠 때가 많다. 이는 놀이를 통한 과학 공부에서 지식과 이해, 암기 위주의 공부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그렇다면, 과학을 놀이처럼 즐겁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놀면서 하는 공부 방식으로 바꾸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학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는 과학저널리스트인 저자 최원석이 흥미롭고 유쾌한 놀이를 소재로 과학을 재미있게 공부하고, 과학을 통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총 6부로 구성되어 전 세계적 연원을 찾을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부터 일상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놀이, 요즘 인기가 있는 스마트폰, 인터넷게임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의 놀이문화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24가지 다양한 놀이를 소개한다.

이 책은 과학에 재미를 못 느끼는 청소년들이나 과학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끼는 학생들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쉽게 풀어냈다.

일반교양

십대를 위한 인성 콘서트

권순이

꿈결 | 2014 | 180p.

경기도립포천도서관 임유라



배려, 소통, 공감, 감사, 존중, 책임감, 정직, 인내, 온유한성품, 자기조절을 어떻게 배려하고 소통 할 수 있는지 길을 제시 해주는 책!

오늘날 왕따나 학교 폭력, 자살과 같은 청소년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인성을 심어주지 못한 오늘날의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은 인성 교육 강화이며, 청소년들이 장차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사회 구성원들과 더불어 사는 미덕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인성이라는 마음의 등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인성 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직 교사가 배려, 소통, 공감, 감사, 존중, 책임감, 정직, 인내, 온유한 성품, 자기 조절이라는 10가지 인성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담아낸 책이다.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하며 쌓은 현직 교사의 경험과 학생들의 고민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것은 숨 막히는 경쟁과 소통 장애의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삶의 지혜와 올바른 삶의 덕목을 제시해줄 것이다.

이 책은 풍부한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인성의 참뜻과 중요성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목고에 입학하기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하여 억지로 정신지체 장애인 친구를 돕다가 '배려'의 가치를 깨닫게 된 규연이의 이야기, 더 큰 만족이나 목표를 위해 순간적인 충동을 참아내는 만족 지연 능력을 시험하는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 '인내'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스스로 행복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성 교육이다. 이 책은 바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어른들과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다.

고전

신분이야기

임완혁

휴머니스트 | 2014 | 260p.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박윤정



두터운 신분의 벽과 차별의 굴레를 뚫고 지혜와 기지, 긍정의 힘으로 인생길을 개척해 나간 고전 속 옛사람들의 이야기

고전이 시대를 초월하여 전 인류에게 읽히고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도 고전이 줄 수 있는 유쾌함과 유익함, 독특한 문학적 매력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전을 통해 '어휘'를 비롯하여 현대사회의 근본이 되는 '옛 것'에 대해 습득할 수 있으며, 이야기 속에 녹아있는 옛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를 익힐 수 있다. 고전은 그저 재미있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얻은 지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 안에서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통해 세상을 대하는 자신만의 소신과 가치관을 정립토록 하는 힘을 준다.

이 책은 우리 고전의 가치를 알리고 청소년들이 이를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어교사모임'에서 출간하고 있는 '국어시간에 고전읽기' 시리즈 중의 한 권이다. 조선시대 내 의지가 아닌 '신분'의 굴레를 쓰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절박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과 기지로 굴레에서 벗어나 인생을 바꾼 옛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학과 풍자를 통해 맛깔나게 담았다. 두터운 신분의 벽, 바늘구멍과도 같은 출세길, 현실을 뚫고 인생을 개척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유쾌하게 펼쳐진다. 이 책은 차별과 억압, 사회적 부조리 등 다소 어두운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이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러한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결국 성공에 이르는 옛 사람들의 노력과 의지를 유쾌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독자로 하여금 통쾌함을 주는 동시에 독자들이 이야기 속 옛 사람들과 교감을 통해 깊고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책을 읽다보면, 독자와 이야기 속 옛 사람들이 사는 시대와 사회적 배경은 다르지만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고전의 힘에 감탄이 나온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것을 안다.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래전부터 축적된 다양한 지식을 익히고, 그렇게 익힌 지식을 토대로 사고의 폭을 넓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힘.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고전 읽기'를 청소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

고전

구운몽 :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아니더냐

이상일

나라말 | 2012 | 332p.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엄영남



주인공 성진의 하룻밤 꿈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덧없음'이라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전해주는 인문고전 명작소설

이 책은 나라말 출판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펴낸 '우리고전 읽기 시리즈' 중 열세 번째 소설로 김만중이 유배생활 중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쓴 소설 '구운몽'을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꿈이 아니더냐'는 부제를 붙여 발간한 것이다. 「구운몽」에서 '구'는 성진과 팔선녀라는 이 책에 나오는 아홉 명의 주인공을 가리키며, '운'은 구름 운자를 써서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나타내고, '몽'은 이 소설의 이중적 환몽구조를 보여준다.

구운몽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 성진은 불교에 귀의했음에도 세속적인 번뇌에 시달린 탓에 인간세상으로 추방되어 양소유로 살아가게 된다. 양소유는 승상의 자리까지 올라 아름다운 2명의 부인과 6명의 첩을 거느리고 인간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곧 나이가 들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고 이때 스승인 육관대사가 양소유 앞에 나타나 다시 본래의 성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육관대사는 인간계의 힘든 삶을 꿈으로 겪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성진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고 크게 꾸짖으며 꿈이나 현실이나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胡蝶之夢)를 한다. 우리는 항상 남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그런 것들에서 찾기도 한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인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오히려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과연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꿈이 아닌 것일까? 그리고 지금 꾸고 있는 이 꿈 속에서 언제쯤 우리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좋은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독자에게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 오늘도 부지런히 하루일과를 지내고 있을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청소년 독자와 함께 인문고전명작인 구운몽이 전해주는 이 철학적 물음에 대한 사색을 공유하고 싶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쯤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책이랑 나랑

어린이 추천도서

▶ 어린이

▶ 유아





알류산의 마법

최영민

분홍고래 | 2014 | 203p.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박혜인



아기 귀신 고래 귀령이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나와 다른 생명에 대한 이타심 갖기

언뜻 이 책의 표지를 보면 멸종 동물을 보호하자는 환경 동화인 듯하지만, 귀신 고래인 귀령이가 일류산 열도로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마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담은 성장 동화이다. 귀신 고래 귀령이는 태어나서부터 익혀야 할 것들이 많다. 다른 물고기들은 아가미로 숨을 쉬는 반면, 고래 귀령이는 폐로 숨을 쉬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가 숨을 쉬는 연습과 자는 동안 오른쪽 뇌를 깨어야 하는 연습도 해야 한다. 주변 물고기들과 다른 '나'의 모습을 고민하는 귀령이에게 이것은 엄마는 '진정한 고래가 되기 위한 공부, 고래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어린 귀령이는 아직 이해하기 어렵다. 일류산에는 마법이 이루어진다는 엄마의 말에 귀령이는 자연의 마법을 보기 위하여 베링해를 지나 일류산 열도로 떠난다. 여정에서 귀령이는 다른 고래들과의 차이, 인간들의 고래잡이 포경선, 범고래로 인한 엄마의 죽음을 겪은 후 경건하고도 경이로운 삶에 마주하고 진정한 고래로 거듭나게 된다. 작가는 고래 귀령이의 여정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나의 삶'이란 철학적인 질문에 고민해보길 권하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철학적 고민을 엄마와 고래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하루 하루를 지내기도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좋은 사람'이란 단어에 대하여 고민하라는 것이다. 이 고민을 넘어섰을 때, 나만 생각하는 내가 아닌 주변 사람들과 나와 다른 종(種)의 생명에 공감하며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속의 수채화 같은 삽화는 바다의 편안하고도 위협적인 분위기를 느끼도록 해주면서 동적인 모험이야기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귀신 고래 귀령이의 삶을 통하여 아이들이 '진정한 나'를 들여다보고 우리들 속에서 일류산의 마법을 마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리프의 희망편지

정리태

출판인 | 2014 | 36p.

경기도립포천도서관 이민섭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일을 하는 아리프의 힘겨운 하루가 기적처럼 변화하는 과정을 따뜻하게 보여주는 이야기

이 책은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올해 진행한 '제6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 쓰기대회'의 주인공인 방글라데시에 사는 아리프의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 동화책이다. 쌍둥이 여동생, 할머니와 함께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년 가장인 아리프는 학교에 가고 싶지만 동생과 할머니를 위해 묵묵히 공장장에서 일한다. 이러한 아리프가 굿네이버스를 통해 학교에 가기까지의 이야기가 잔잔하고 따뜻하게 담긴 책이다. 방글라데시 북부 타쿠르가온에 사는 열두 살 소년 아리프의 꿈은 비행기 조종사다. 하지만 아리프가 태어나고 열흘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떠났다. 아리프는 여동생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야 했다. 이후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리프는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몸이 아픈 할머니와 여동생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열두 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의 나이인데 아리프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을 짓는 일터에 나가서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일을 해야만 했다. 아리프는 학교가 정말 그리웠지만 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때 학교 선생님은 아리프에게 굿네이버스라는 대한민국의 NGO 단체에게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아리프는 후원을 통하여 또래 아이들처럼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전하며 동화책은 끝이 난다. 이 책을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고 지금 지구 반대편의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본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아이들이 나눔의 정신을 함양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이 책을 통해 갖길 바란다.



숫자가 우수수수

브루노 다모레
청어람미디어 | 2014 | 89p.

경기도립김포도서관 김문희



최초로 계산을 하기 시작한 사람부터 컴퓨터와 인간의 두뇌 대결까지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숫자가 우수수수’는 청어람 미디어에서 출간한 ‘생각이 크는 꼬마전구’ 시리즈의 셋째 권이다. ‘생각이 크는 꼬마 전구’ 시리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과학 시리즈로, 책의 표지에 적혀 있듯이 2013년 이탈리아 안데르센상 교육 대상 수상작이다. 또한 “2014년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과학도서 시리즈 부문으로 선정 된 바 있다. 이탈리아 안데르센상은 올해로 서른 두 해째를 맞는 유서 깊은 상이며, 1982년 ‘안데르센’ 잡지가 주축이 되어 시작된 상으로 현재는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출판문화산업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한다. 이탈리아에서 ‘냉철한 머리’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닌 어린이를 대신하여 질문을 던지는 인터뷰어를 썼다. 즉 어린이를 대신하여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전개해 나간다.

이 책의 저자인 페데리코 타디아가 질문을 하고 수학자 브루노 다모레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글은 진행이 된다. 어린이다운 엉뚱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하는 페데리코 타디아 작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방송인 겸 작가이며, 숫자와 그에 얽힌 수학에 관한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해주는 브루노 다모레는 요리사로 일한 특이한 경력이 있는 수학자이다.

이 책의 또다른 특징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을 필요도 없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질문과 답들만 골라서 읽어도 된다는 점이다. 또 이 질문에서 저 질문으로 맘 내키는 대로 여기저기 들춰가며 읽어도 되기 때문에 책을 싫어하거나 수학을 싫어하는 어린이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내 용돈 다 어디 갔어?

박현숙
팜파스 | 2014 | 112p.

경기도립광주도서관 신성욱



돈에 대한 소중함과 저축의 중요성을 몰랐던 '문방구대마왕' 성민이를 통해 배워보는 쉽고 재미있는 용돈 사용법

아이들에게 언제쯤 ‘돈’에 대해 알려주어야 할까?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시기와 비용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손에 용돈을 쥐어 준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돈의 소중함과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은 ‘아직 어리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인데’란 판단에 묻혀버리고 만다. 이 책은 계획 없이 손에 쥐어진 용돈을 함부로 쓰고 심지어 빛의 의미도 모른 채 빛을 진 성민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장난기 가득한 얼굴에 꼬불꼬불 곱슬머리를 가진 성민이는 하루가 멀다하고 문방구에 들러 새로 나온 불량 식품을 누구보다 먼저 사먹어야 하는 ‘문방구대마왕’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모님께서 준 용돈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문방구 불량식품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대체 내 용돈은 다 어디로 간거야?’ 하지만 성민이는 용돈이 떨어지면 빌리면 되고 어른이 되어 갚으면 된다고 다시 문방구로 발걸음을 옮긴다. 어느 날 엄마는 온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빚장부’를 해맑은 성민이 앞에 내려놓는다. 성민이의 한 달 용돈 이만 원 중에서 가족들에게 진 빚을 나눠 갚기 전까지 절대 돈을 빌려 주지 않게 다는 냉정한 한마디와 함께 말이다. 계획적으로 돈을 쓰기 위한 ‘용돈기입장’도 함께 받았지만 반으로 줄어든 용돈으로 서러움만 늘어간다. ‘문방구대마왕’에서 빚쟁이가 된 성민이는 짧은 인생에 닥친 첫 번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이 아이들의 작은 손에 쥐어진 용돈은 먹고 싶은 불량식품이나 갖고 싶은 장난감으로 바꾸는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왜 용돈이 자꾸 사라지는지 고민하는 아이에게 왜 월급이 자꾸 사라지는 미래의 고민까지 안겨주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라면 좌충우돌 성민이의 용돈 씬씀이를 통해 재미있고 쉬운 경제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새들은 왜 깃털이 있을까?

멜리사 스튜어트

다섯수레 | 2014 | 30p.

경기도립평택도서관 서민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보온' 과 날기 위한 '비행' 의 용도를 비롯하여 놀라운 자연의 신비를 알 수 있는 다양한 깃털의 16가지 쓰임새

아이들이 깃털의 용도에 대해서 묻는다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보온의 기능과 날기 위한 비행의 기능'만을 설명해 줄 것이다. 하지만 호기심이 왕성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새들의 깃털의 용도가 보온과 비행'이라는 설명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깃털이 몸의 보온과 날기 위한 목적뿐이라면 왜 각각 다른 새들이 저마다 다른 모양의 깃털을 갖는 걸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린이를 위한 과학책을 다수 쓴 작가 멜리사 스튜어트의 작품으로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깃털의 의문을 해결해주고자 다양한 깃털의 쓰임새를 16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단지 보온과 비행의 목적으로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깃털은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귀한 수분을 보존하여 갈증을 식히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을 비롯해 16가지의 다양한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단, 이 16가지의 기능은 모든 새가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새의 특징에 따라 깃털의 쓰임새가 각각 다르다. 작가는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마다 다른 쓰임새를 갖는 깃털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사물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미국회색멧새가 천적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펼치는 공지 바깥쪽 깃털은 마치 투우사의 망토와 같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신기하고 놀라운 깃털의 16가지 쓰임새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새의 일부에 대해 그동안 알고 있던 틀에서 벗어난 넓은 사고로 확장하고 동시에 다른 사물을 관찰할 때에도 이미 알고 있는 주변의 사물과 비교하며 공부하는 방법도 터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블랙아웃

박효미

한겨레아이들 | 2014 | 242p.

경기도립포천도서관 최영심



숨 막히는 블랙아웃 7일간의 기록, 어린이 눈으로 바라본 이기적인 어른과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

해마다 여름이 되면 늘 듣는 말이 있다. 전력 비상사태 선포! 에너지 절감!!

박효미 작가가 쓴 <블랙아웃>은 일주일 동안 일어난 가상의 대규모 정전 사태를 다룬 장편동화이다.

<블랙아웃>은 더운 여름날, 초등학교 동민과 누나 동희가 부모님이 출장 간 사이 겪게 되는 일주일간의 대규모 정전사건을 다루고 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루 동안의 이야기가 각 장을 이루고 있으며,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치밀하게 묘사되어 긴장감을 높인다. 은행도 식당도 병원도 학교도 문을 닫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고, 곧이어 수도물도 끊기고 가스도 끊긴다. 사람들은 블랙아웃이 곧 해결될 거라고 믿었으나 하루하루 이어진 불편한 사태는 7일간 계속된다. 아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어렵게 구한 물과 비상식량은 상점 앞에서 바로 도둑에게 빼앗긴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전기가 끊긴 도시의 모습을 동민이의 시선으로 기록한 이 이야기는 현대 문명사회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일주일간의 사건은 주인공 동민이의 시선으로 그려져 있다. 양심을 버리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어른들, 시민과 대치하는 경찰들과 무능한 정부의 대책 등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해 본 우리 사회의 씁쓸한 모습이다. <블랙아웃>은 가상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무모한 판타지는 아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짜증방

소중애

거북이북스 | 2014 | 123p.

경기도립김포도서관 정은성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쉽게 짜증내는 아이와 엄마를 위한 동화책

이 책은 책 표지에 팔짱을 끼고 도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짜증 많은 아이 도도의 이야기다. 아토피 때문에 몸도 가려워 죽겠는데 주위를 둘러 봐도 온통 짜증스러운 일 뿐이다. 고기반찬이 없다며 밥 안 먹는다고 숟가락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사람 많은 식당에서 주위 사람 아랑곳 하지 않고 투정부려 엄마를 곤란하게 하는 하거나, 친구가 똥똥하고 못생겼다고 조금만 건드려도 싫다며 친구를 밀치는 등 주변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짜증이 이다.

그러던 어느 날, 도도네 집에 이모할머니라는 분이 찾아온다. 그리고 때마침 엄마는 중국에 계시는 아빠가 다치셔서 중국에 가게 되어 도도는 할머니와 둘만 생활을 하게 된다. 할머니는 도도에게 맛있는 채소 반찬만 주고 밥을 굶어도 내버려두고 이상한 마법의 약을 부글부글 끓이기도 한다. 도도는 혹시 마귀할머니 아닐까 생각하기도 한다. 몰래 할머니 방에 들어간 도도는 첫 번째 짜증방, 두 번째 짜증방, 세 번째 짜증방을 만나게 되고 방을 하나하나 열 때마다 지난날 자신이 짜증부리던 모습을 보게 된다. 어릴 적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짜증을 부렸는지 알게 된다.

이 책의 작가 소중애 선생님은 곳곳에서 만나는 짜증이들의 버릇이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어떤 이유이든 짜증은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도 같은 짜증이들은 남을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행복하지 못하다. 내 맘대로 되지않는다고 짜증부리는 아이들과 어른들이라면 이 짜증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길 권한다.



흑룡만리

박소명

우리아이들 | 2014 | 40p.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진경



제주도의 아름다운 발담과 돌담에 붙여진 '흑룡만리'에 영감을 얻어 쓰여진 소년 백범과 흑룡이야기.

제주도는 돌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때문에 구멍이 송송 뚫린 제주 돌은 제주도 어디에서나 친근하게 볼 수 있는 명물이다. 낮은 돌담 사이에 피어난 유채꽃이 더욱 이쁘고, 가지런한 발들 사이에 구불구불 이어진 발담이 정겹다. 제주도의 돌담과 발담을 모두 이으면 중국의 만리정성보다도 10배 이상의 길이로, 연결된 모습이 한 마리 거대한 흑룡을 연상시켜 '흑룡만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제주의 명물 '흑룡만리'에 영감을 얻어 이 이름에 얹힌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갔다.

잘못을 저지른 커다란 흑룡이 벌을 받아 제주도 깊은 땅 속에 갇혀있었다. 수백년이 지난 어느날, 흑룡은 참지 못하고 화룡으로 터져나와 흑룡을 감시하던 설문대 할망에 의해 산산조각나 제주도 각지에 돌로 흩어지게 된다. 세월이 흘러 이 돌무지 위에 살아가는 제주도민들이 싸우기만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지혜로운 소년 백범. 그가 다시 발담을 쌓아 흑룡을 살리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터전에도 웃음꽃이 피어나는 과정이 구수하게 펼쳐진다. 할머니 옛날이야기를 듣듯이 술술 이어지는 동화는 제주 설화 속 설문대 할망과, 실제 고려 역사 속 인물인 제주 판관 김구가 백범으로 등장해 생동감을 더한다.

이 동화를 읽고 있으면 아름다운 제주의 발담이 저절로 눈 앞에 펼쳐진다.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오르는 흑룡처럼 이야기에는 생명감이 가득하다.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휘이휘이 날아오르는 흑룡처럼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쳐보면 좋을 것이다.



친구가 자꾸 놀려요

베스 브래컨

노란우산 | 2014 | 44p.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정은교



친구와 관계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 알려주어, 사회성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인성동화

「친구가 자꾸 놀려요」는 인성동화로 주인공들이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바른 생각과 태도를 알려주는 책이다.

“친구가 놀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친구의 놀림으로 ‘친구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성을 키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인공인 ‘빌리’는 친절하고 예의바른 아이로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만, 항상 자신을 비웃으며 놀리는 ‘프레드’로 인해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된다. 그러나 빌리는 용기를 내어 프레드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여, 프레드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감을 되찾는다.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친구도 없는 프레드는 빌리를 통해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프레드 역시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책 속의 빌리와 프레드의 관계는 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아이들은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모르고, 놀리고 괴롭히는 것으로 관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친구가 있을 때, 용기를 가지고 잘못된 점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 책을 통해 친구를 놀리는 것은 나쁜 행동이며, 빌리처럼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은 친구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엄마 고마워요

정해왕

국민서관 | 2013 | 40p.

경기도립포천도서관 장주택



엄마의 은혜를 되짚어 보면서 ‘효’가 무엇인지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엄마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의 고백

『엄마 고마워요』는 엄마의 사랑과 돌봄에 대한 감사를 아이가 직접 고백하는 그림책입니다. 아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고 들은 자신의 이야기, TV나 책에서 본 엄마의 모습 등을 통해 자신을 위해 희생해 온 엄마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자녀에게 효를 일깨워 주던〈부모은중경〉을 밑바탕으로 새롭게 쓴 〈부모은중경〉의 현대판으로 ‘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하나씩 짚어 보면서 ‘효’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엄마는 열 달 내내 나를 정성스레 품어 주고 끔찍한 고통을 참으며 아무 탈 없이 나를 낳아 주었습니다.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먹여주고 입혀주었던 엄마는, 나의 곁에서 항상 나를 돌봐주고 늘 사랑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림 하나하나 참 따뜻한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바로 엄마 품에 안겨 잠든 아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보살핌과 희생에 감사하고, 엄마는 그동안 아이 키우며 힘들다는 내색도 못 하며 살았는데 누군가에게 토닥토닥 위로 받는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엄마 덕분에 이만큼 자랐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면의 쉼터, 신동엽 문학관을 찾아서

시인 신동엽 (1930~1969)

부여가 낳은 천재적인 시인 신동엽(1930~1969)은 1959년 장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하면서 문단에 나와 <껍데기는 가라> <금강> <누가 하늘을 보았다가 하늘가> 등 민족문제와 역사의를 일깨우는 명작을 발표하여 1960년대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민족시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글_임유라, 최영심
경기도립포천도서관



신동엽 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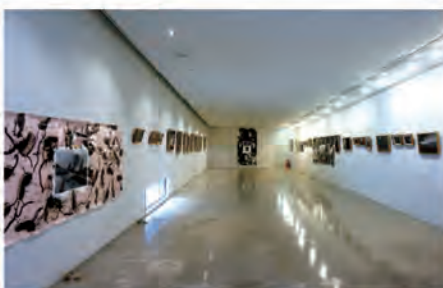
그는 일제 강점기 때 부여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을 거치고 민주화 운동인 4.19혁명을 겪으며 그야말로 민족의 아픔을 대변하는 파란만장한 근대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삶을 살았다. 이에 시인은 어릴 적부터 민중의 삶을 인식하게 되었고 조국의 아픔, 외세의 분단, 부패한 권력 등 그의 울분을 시에 토하며 39세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중·고교시절에 교과서에서 신동엽 시인의 작품을 접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도 어릴 적 교과서에서 〈껍데기는 가라〉시를 읽은 기억이 있다. 그 시대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읽었음에도 가슴을 치며 거짓과 불의에 저항 하는 시인의 모습이 저절로 상상이 되곤 했었다. 2013년 5월 3일 승효상 건축가 건축하여 정식 개관을 한 신동엽문학관은 1층으로 전시실, 북카페, 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있다. 어디로 가든 길이 되게 만들어져 있어서 길은 또다시 다른 공간이 되어 만나기 때문에 작지만 마치 작은 미로공원을 걷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선이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신동엽 생가를 거쳐서 문학관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로 우왕좌왕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다음 공간으로 발길을 이끌게 만들었다.

문학관에 정문에 들어서면 시인의 흉상이 눈에 들어온다. 수려하게 생긴 그의 외모는 조각가의 손을 거쳐 강인함까지 느껴졌다. 전시실에는 그의 육필원고 737점, 편지, 사진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그의 학생증과 편지, 그가 즐겨 읽던 시집까지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눈길이 끄는 것은 그의 아내 인병선과 주고 받은 편지였다. 두 부부가 사랑이야기가 담긴 편지내용에는 서로에 대한 깊고 짙은 존경심이 깔려있었다. 문학관 앞마당에는 시인의 대표 시 구절들을 깃발처럼 형상화한 조형물도 또 다른 볼거리였다. 그 앞에는 1982년 복원된 신동엽이 자라고 신혼생활을 한 생가가 있는데 시인 부부와 부모님들이 살던 방 두 개짜리 집과 자그마한 마당이 전부인 소박한 곳이다. 방문 옆에는 〈껍데기는 가라〉의 육필원고를 진흥으로 펴서 만든 부조가, 방문 위에는 부인 인병선 시인이 쓴 〈생가〉라는 감동적인 시가 신영복 선생의 글씨로 목판 되어 걸려 있다.

고즈넉한 생가와 현대적이고 세련된 문학관이 한 곳에 공존하지만

독특한 분위기를 내며 주변 경관들과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시인을 함께 추억하고 가슴으로 시인을 사랑한 많은 이들의 노력이 곳곳에 배어있는 이곳에서 그의 시집을 읽으며 달콤한 휴식을 취해 보는 것도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이 될 것 이다.



신동엽 문학관 관람정보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신동엽길 12

전화 : 041-830-2723

이용시간 ▶ 하절기(4월~10월) : 09:00~18:00

▶ 동절기(11월~3월) : 09:00~17: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신정, 설날 및 추석 연휴

관람료 : 무료

홈페이지 : <http://www.shindongyeop.com>

이용자가 선택한 **즐거찾는 책 FIVE**

중앙



일반

미생
윤태호 | 위즈덤하우스
허삼관 매혈기
위화 | 푸른숲
식객
허영만 | 김영사
정글만리
조정래 | 해냄
감정은 습관이다
박용철 | 추수밭



어린이

또 잘못 뽑은 반장
이은재 | 주니어김영사
(Why? People) 루이 파스티르
남석기 | 예림당
그림도둑 준모
오승희 | 낮은산
진취 바이러스
최나미 | 우리교육
자유가 뭐예요?
오스카 브르니피에 | 예림당

평택



일반

가면산장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 재인
여자 없는 남자들
무라카미 하루키 | 문학동네
나를 찾아줘
길리언 플린 | 푸른숲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양창순 | 센추리원
청춘의 인문학
안상현 | 북포스



어린이

경제주체 이야기 33가지
신유선 | 을파소
제로니모의 환상모험
제로니모 스틸턴 | 사파리
엄마 5분만
노경실 | 좋은책어린이
개구리 왕자
그림형제 | 여원미디어
열두 띠 이야기
정하섭 | 보림

광주



일반

크리에이티브 데이
마리사 앤 | 걸쳐그라퍼
미생
윤태호 | 위즈덤하우스
인문학 명강
강대진 | 21세기북스
재봉틀로 만드는 북유럽 스타일 실용 소품
박정원 | R+K
관점을 디자인하라
박용후 | 흐름북스



어린이

고양이가 물어간 엄마
이종은 | 가교
우산과 미꾸라지
김현주 | 아르볼
색깔을 훔치는 마녀
이문영 | 비룡소
신고해도 되나요?
이정아 | 문학동네
까막눈이 산석의 글공부
김주현 | 개암나무

대출기간 : 2015. 1. ~ 2015. 3.

일반



미생
윤태호 | 위즈덤하우스
가면산장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 재인
신과 함께 : 신화편
주호민 | 애니박스
내 심장을 쏘라
정유정 | 은행나무
정글만리
조정래 | 해냄



어린이

공꾸는 율리
앤서니 브라운 | 웅진닷컴
환상 정원
류화선 | 문학동네
판다 목욕탕
투페라 투페라 | 노란우산
내일은 수학왕
곰돌이 co. | 아이세움
애고, 똥 났네!
박종진 | 키즈엠

포천

일반



미생
윤태호 | 위즈덤하우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박시백 | 휴머니스트
식객
허영만 | 김영사
제3인류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 열린책들



어린이

제로니모의 환상모험
제로니모 스틸턴 | 사파리
마법의 시간여행
메리 폴 어즈번 | 비룡소
개구쟁이 아치
기요노 사치코 | 비룡소
빨간 내복의 초능력자
서지원 | 와이즈만BOOKS
내 이름은 뽀빠 룽스타킹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 시공주니어

김포

일반



검은 양과 또 다른 우화들
아우구스토 몬테로소 | 자식을만드는지식
부석사
(제25회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
신경숙 | 문학사상사
그때는 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전영수 | 맛있는책
꼬호머더, 스리랑카?
안종현 | 시나리오친구들
프라하, 탄자니아에 빠지다
최은주 | 한국국제협력단



어린이

생일 선물로 어떤 걸 고르지?
김희승 | 대연출판
하나의 평화
자넷 윌슨 | 우리교육
그때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조항록 | 흥진P&M
마법 햄스터 코코와
신비의 발표, 말하기 비법
장보람 | 팜파스
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감
서지원 | 소담주니어

여주

도서관 이모저모

중앙 소식

2015년도 상반기 학부모평생교육 및 도서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은 2015년도 상반기 학부모평생교육 및 도서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부모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독서코칭 프로그램 인 책 좋아하는 아이만들기 및 독서논술지도사 자격증과정 등 총 8개 과정이 개설되며, 이용자들이 야간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역사는 경제다와 낮 시간대 성인학습자의 기초 한글 및 수 교육을 위한 한글교실(초급, 고급) 강좌도 운영된다. 유아 및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책을 그리는 아이들(초등 1~2), 꿈틀꿈틀 맛있는 그림책(6~7세), 창의력 쑥쑥 과학교실(초등 3~4)의 3개 강좌가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고, 강의계획서는 수강신청 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문의 | 031-240-4041~2

평택분관 소식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등 계층별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택분관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등 계층별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부모 및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경제흐름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살펴보는 한국사, 인문고전을 통해 동양 사상과 철학을 알아보는 고전이 있는 철학산책, 자녀 독서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독서지도법을 배우는 우리아이 독서지도를 운영하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영어동화 운영을 통해 어린이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를 고취시키는데 힘을 기울인다. 또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초·중학교 7개교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한다. 문의 | 031-667-4207



광주분관 소식

장애아동 프로그램 / 행복을 꿈꾸는 미술놀이 치료 / 3월부터 운영

광주분관에서는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내 특수학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행복을 꿈꾸는 미술놀이치료 라는 주제로 장애아동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한다. 예쁜 나무토막 찰찌 만들기, 아름다운 노트 만들기, 이야기 그림책 만들기, 니만의 연필꽂이 꾸미기 등 장애아동과 함께 미술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내용으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심어주고, 학습능력 및 사회성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031-768-6922



포천분관 소식

초등학생 대상 겨울방학특강 운영

포천분관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특강을 운영하였다. 1.5.~1.9.(5일간) 초등 4~5학년을 대상으로 총 20명이 참가한 독서디베이트를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책에서 찬반 논제를 찾아 논리게임으로 진행되는 토론 중심의 독서교육으로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독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2015년 한해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031-531-8753



김포분관 소식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김포분관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월부터 11월까지 김포관내 유·초·중·고등학교의 학교도서관을 직접 찾아가 학부모 대상 인문학 강연, 학생 대상 작가초청 강연, 유아대상 인형극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문학 강연은 인문학, 삶을 만나다를 주제로 출판사 서해문집의 대표 김흥식 작가가 8차시 동안 강연한다. 작가초청 강연은 허교범 작가의 셀룩 홈즈는 왜 말싸움을 잘할까? 등이, 인형극 공연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 031-984-3536



여주분관 소식

학생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 마련

여주분관에서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과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관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중국어 회화과정은 여주분관에서 처음 운영되는 외국어 과정으로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국어를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지역내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재능기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동화구연지도사 자격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과정 수료자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참여 활동이 기대된다. 또한 과학교실, 미술치료 등 학교와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유관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 031-882-1066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VOL.
32

2015 SPRING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 · 광주 · 포천 · 김포 · 여주



지난호 정보지는 e-book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happylib.or.kr | 열린마당 | e-독서정보지 |